

민주노동운동
시민연합

민주노동운동
시민연합

민주노동운동
시민연합

민주노동운동
시민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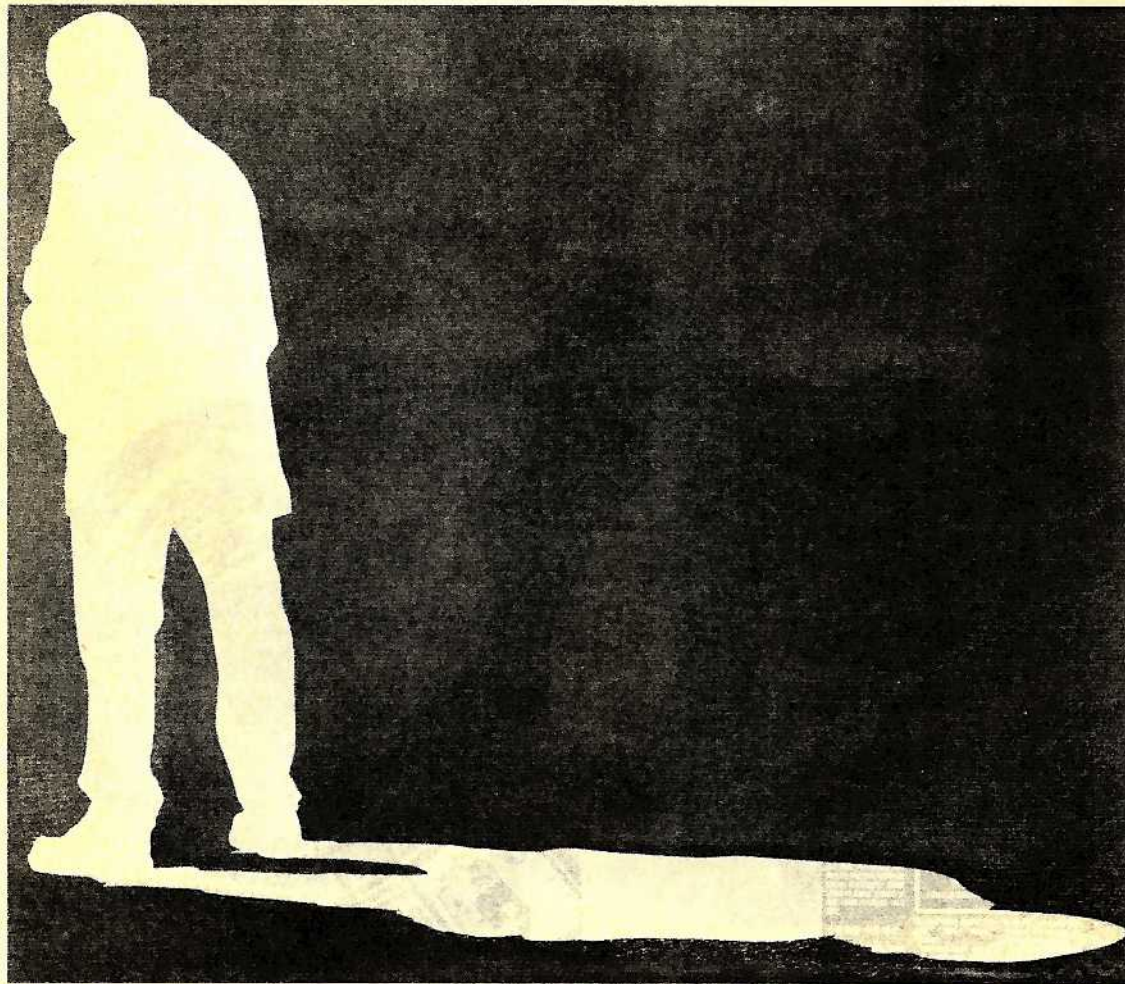


민주노동운동
시민연합

09 부나타 부고서
인권정보자료실
CPh1.54
세계의
마지막
크림
자

인권정보자료실
CPh1.54

민주노동운동
시민연합





언론개혁을 위해 끊임없는 언론 감시를...

지난 한해를 돌아보며 새롭게 시작하는 민언련
신문·방송분과 회원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본 모니터보고서는 우리 사회에서 언론권력이 부정적인
영향력을 얼마나 많이 행사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는 증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언론은 북한관련 보도에서 여전히 긴장과 대립을
부추기는 냉전적 보도로 일관했으며 중앙일보사태 보도에서는
양비론적 시각에 빠져 본질을 흐리는가 하면, 8·15사면과
지하철파업·조폐공사 파업유도관련 보도에서는 초점을
흐리는 불공정한 보도를 일삼아 왔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4·13총선 관련한 선거보도에서도
여전히 지역감정을 부추리는가 하면, 정치불신을 조장하는데
앞장서는 등 언론의 역할을 망치고 오히려 사회적 불의를
일으키는데 한 몫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발전에 있어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언론이 제 역할을 하고 더욱 발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언론의 역할을 망치고 오히려 사회적 불의를 일으키는데...

변하지는 않겠지만 작은 실천을 통해 조금씩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언련의 신문·방송모니터 보고서가 좋은 안내자의 역할을 해 주리라 믿습니다.

올해도 민언련은 '언론개혁'을 위해 끊임없이 언론을 감시할 것이며 비판활동을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신문·방송모니터 활동은 8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의
언론보도 감시 활동도 많은 변화와 성장이 있었습니다. 이제 더욱 정교한 분석과
냉철한 시각으로 모니터에 임할 것이며 이를 위해 모니터 분과 당사자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의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관심과 열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모니터
자료집을 통해 언론감시의 중요성을 더욱 알려내고, 한 단계 나아가는 모니터 활동의
제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언론모니터를 위해 열의와 열성을 다해준 신문·방송모니터
회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장 성 유 보

방송분과 모니터

발간사 방송모니터	4
I. '99 올해의 좋은·나쁜 방송	11
II. '99 이달의 좋은·나쁜 방송	21
III-1 '99 기획모니터	61
보도부문	
III-2 '99 기획모니터	85
비보도부문	
IV- '99 외부기고문	101

목차

신문분과 모니터

목차

신문모니터

I '99 10대 왜곡 편파보도 선정	119
II '99 이달의 최고 최악 사실	125
III-1 기획모니터	149
조선일보를 아십니까 - 조선일보와 지역감정	
III-2 기획모니터	165
조선일보 공화국 - 독설을 해부한다	
III-3 기획모니터	183
재벌언론 - 재벌언론의 독립운동	
III-4 기획모니터	189
NGO관련 기사들국내-NGO보도 걸음마 단계	
IV-1 일상모니터 - 정치관련 보도	199
IV-2 일상모니터 - 경제관련 보도	235
IV-3 일상모니터 - 사회관련 보도	259
IV-4 일상모니터 - 노동관련 보도	305
IV-5 일상모니터 - 대북관련 보도	317
외부글	328
민언련은	333

언론학교



"찰언론 실천 한마당" 언론학교는 지난9년 11월에 신설되어 현재 33기 수강생 모집을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교육에 대한 요구가 드높았던 개설 당시 100여명 이상의 학생·시민이 모여 언론에 대한 관심을 모았던 민언련의 대표적인 강좌입니다. 회를 거듭할수록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현재 언론에 대한 자각과 민주언론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강사 및 강의내용

1. 뒤집어 보는 언론의 역사 - 이호성 (성균관대 신방과 교수)
2. 신문읽기의 혁명 - 손석춘 (한겨레신문 여론대체부장)
3. 왜곡사태로 본 방송과 현명한 시청자되기 - 최문순 (언론노련 위원장)
4. 미디어 세상을 향한 새로운 도전들 - 김명준 (노동자뉴스제작단 대표)
5. 풀뿌리 언론이 세상을 바꾼다 - 장호순 (순천향대 신방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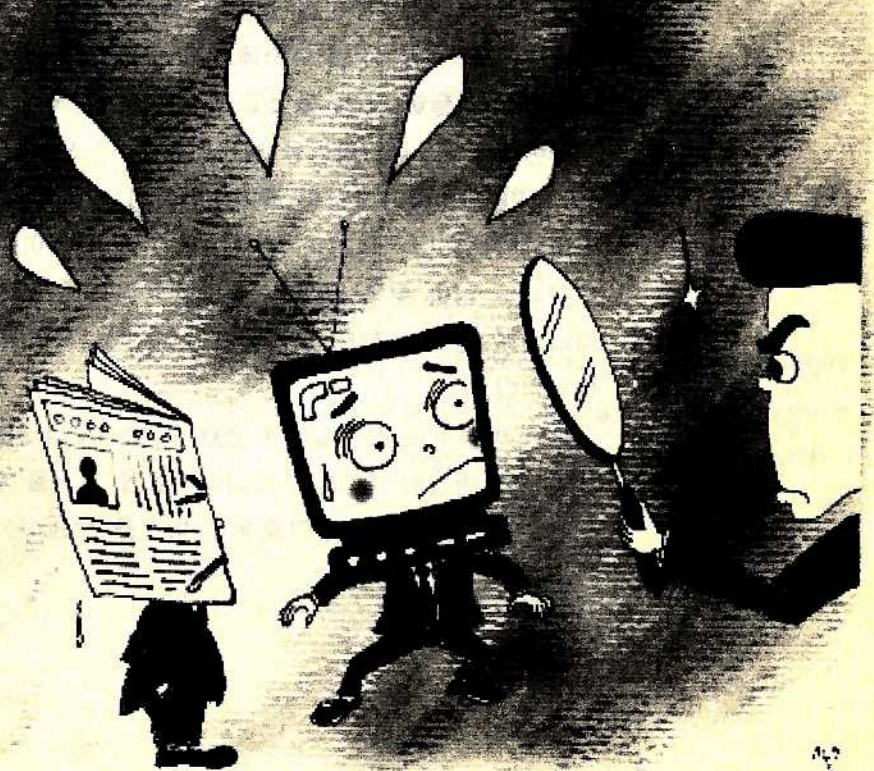
<수련회> 시민언론운동 바로알기

6. 시민운동가의 제언 : 언론개혁, 이렇게 하자/
7. 북한관련 보도의 숨겨진 진실 - 정일용 (연합뉴스 북한부)
8. 언론노동운동의 과제와 전망 - 손석희 (MBC 앵커)
9. 언론에 빼앗긴 인권 되찾기 - 박형상 (변호사)
10. 시민이 할 수 있는 언론운동 - 최민희 (민언련 기획관리국장)

▶기간 : 주2회 매주 화·목
▶시간 : 7-9시(연4회), 총10~12강
▶수강료 : 50,000원



방송모니터



방송모니터 총평

방송모니터 본과장

「방송의 주인은 시청자다」

이 명제가 우리가 방송을 감시하고 견제해나가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그것은 시청자로서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의무이기도 하다.

방송의 사회·문화적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내리기는 힘들다. 영향력이 커질수록 사회적 책임을 오히려 망각하고 상업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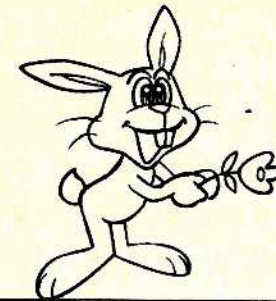
시민사회가 활발해지면서 시청자 모니터단체들도 숫적으로는 더욱 늘어났지만 이런 방송의 영향력 증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는 부족함을 많이 드러내고 있다. 이에 언론운동단체의 말형격인 민언련이 더욱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의미에서 본 모니터자료집은 1999년 한국 방송의 그림자인 동시에 민언련 방송분과 활동의 자화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1999년의 민언련 방송분과는 분명 재도약의 한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전년도에 비해서 2배이상 늘어난 모니터보고서 분량과 질적 향상이 그를 잘 증명해준다. 짧지 않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부침이 많았던 회원명단도 99년에는 꾸준한 회원들이 제법 늘었고 매월 <이 달의 좋은, 나쁜 방송>을 선정하는 등 부지런하게 모니터 활동을 벌여 상시적인 모니터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하지만 연말평가에서도 제기되었듯이 반성할 것과 아쉬운 것도 많았던 한해가 아니었나 싶다. 시의성이 부족했고 기본이 되어야 할 방송시청률과 자체 재교육도 많이 부족했었다. 또 조직운영과 관련해서 간사의 역할비중이 지나치게 높았던 점도 회원들의 보다 적극적이고 자발적 참여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모든 방송분과 회원들에게 2000년 방송모니터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면서 1999년을 반성할 수 있는 모니터자료집 제작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은경, 민정, 우석, 경훈에게 박수를 보낸다.



I

'99 올해의 좋은 나쁜 방송



좋은 방송

오락 부문

▶ 배미게임 (MBC) ▶ 파워연예 (KBS) ▶ 드라마 「학리」 (KBS)

비오락 부문

▶ 이겨는 말할 수 있다 (MBC) ▶ 시청자 컬럼 오미사는 세상 (KBS) ▶ 세상보기 (EB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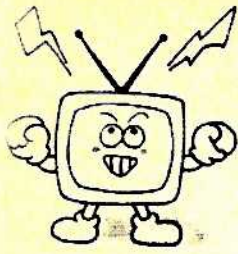
나쁜 방송

오락 부문

▶ 각종 미인대회(미스크리아 선발대회 MBC/ 슈퍼얼티트 모델 선발대회 SBS) ▶ 연예정보 프로그램 (색선TV 연예통신 MBC/ 한밤의 TV연예 SBS/ 연예가장게 KBS) ▶ 일요일 일요일밤에 (MBC) ▶ 남희석·이의 재의 멋진 만남 (SBS)

비오락 부문

▶ PDS집 「박경리를 만난 사람들」 (MBC) ▶ 지아 걸 파업 관련 보도 (KBS, MBC, SBS)



1999년의 좋은 · 나쁜 방송

1. 좋은 방송

- 올 한해 방송을 총 점검한 뒤 좋은 방송, 나쁜 방송 각각 22편, 19편의 후보작을 추렸습니다.
- 이중 2차례의 토의과정을 거쳐 좋은 방송, 나쁜 방송 각각 6개씩 선정하였습니다.
- 최종 선정작은 오락과 비오락 부문별로 3편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나쁜 방송의 경우 오락에 치중되는 경향이 짙어 오락 4편, 비오락 2편으로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 미인대회와 연예정보 프로그램의 경우 방송사별로 차이가 미미한데다 방송 그 자체의 전반적 문제점이 더욱 심각한 관계로 특정 프로그램이 아닌 장르자체를 나쁜 방송으로 선정하였습니다.

1) 오락 부문

□ 테마게임 (MBC)

탄탄한 내용과 연출력이 돋보이는 프로그램, 코미디 극의 세지평 열다

지난 95년 4월 첫 방송을 내보낸 후 테마게임은 시청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우리 방송의 오락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가볍고 의미 없는 억지 웃음을 요구하는 저질성을 못 벗어나는 가운데 <테마게임>은 의미있는 내용과 자연스런 웃음 유발 등 재미와 유익함을 갖춘 수작으로 평가받아왔다.

민연련 방송분과는 <테마게임>이 '다양한 소재를 통해 코미디의 사회적 역할을 실천'한 것으로 평가한다. '처세', '왕따', '입양', '성감별 낙태' 등 지금까지 코미디의 소재가 되지 못했던 사회문제 영역을 '재미있게' 다뤄 시청자들에게 호소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탄탄한 구성력과 대본, 출연진들의 연기도 <테마게임>이 높이 평가받는 요인으로 꼽힌다. 인물의 갈등, 사건의 인과관계가 단순하지 않지만 불필요하게 복잡하지도 않다. 드라마적 측면에서 볼 때 테마게임은 주제와 형식 모두 현실성 없는 사랑타령 일색의 기존 드라마들을 극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재의 빈곤 등을 이유로 11월 22일 마지막 방송된 것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아쉬움을 남겼다. 그동안 표절과 저질방송 시비에 휘말리는 오락 프로그램 제작자들은 앞으로는 보다 참신한 기획과 창의력이 묻어난 프로그램 제작에 힘써 테마게임과 같이 두 마리 토끼잡기가 가능한 프로그램 제작에 임하기를 당부한다.



□ 파워인터뷰 (KBS)

말잔치 토크쇼의 가벼움을 벗다

매주 일요일 오후 11시 KBS 2TV에서 방영되는 파워인터뷰는 최근 범람하고 있는 '말잔치' 토크쇼의 한계를 극복하고 진지함과 재미를 두루 갖춘 토크쇼로 평가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토크쇼는 지나치게 가벼운 내용과 신변잡기로 흐르기 쉽다. 편안한 대화분위기는 자칫 출연자를 비하하거나 혹은 지나치게 띄워주는 데 이용되기도 한다. 이는 시청자들의 의식을 한없이 가볍게 만들어 놓음으로써 '바보상자' 텔레비전의 모습을 여지없이 드러낸다는 지적. 편안한 대화형식이 게스트로부터 솔직하고 심도 깊은 답변을 이끌어낼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대부분의 토크쇼는 부작용만 드러낸 셈이다.

이와 달리 파워인터뷰는 편안한 대화분위기보다 게스트 한 사람에게 대해 진지하고 예리한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듣는 인터뷰 형식을 적극 활용했다. 다소 딱딱해질 수 있는 형식상의 단점은 오히려 솔직하고 심도깊은 이야기들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게다가 출연자들(패널, 게스트)의 재치있는 입담이 재미를 더해주기도 한다.

또 다양한 출연자 선정을 통해 TV에 대한 다양한 계층의 접근을 보여주며 출연자의 입담과 스타성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 드라마 「학교 I」 (KBS)

'학교'에는 왕따도 영웅도 없었다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은 많지만 청소년을 주제로 조망하며 생생한 교육현장과 학생, 선생님, 학부모를 두루 다룬 프로그램은 많지 않았다. 게다가 청소년을 시청계층으로 노린 오락프로그램들이 시청률 경쟁의 노예로 존속, 방송에서 청소년은 진지하게 다루어지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올해 2월 22일부터 4월 13일까지 방영된 드라마 [학교 I]는 기존 청소년 드라마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긍정적 평가다. 억지스런 이야기 전개, 스타시스템에 의존하는 출연자 선정 등으로 시청률 경쟁의 노예라 해도 과언이 아닌 일반 드라마와 분명한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또 출연자 대부분이 한번씩 주인공으로 선정되는 등 이 프로그램에서는 '왕따'도 '영웅'도 없었다.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을 소재로 한 이 드라마는 현실을 최대한 사실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특정 인물의 성격이 과장, 이로 인해 내용의 전달보다는 인물의 개성을 부각하는데 치우쳐 가는 경향을 보였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지만 매우 사실적인 묘사와 '복선'을 이용한 드라마 구성으로 연출의 묘미를 돋보이는 등 근래에 보기드문 '좋은 드라마'로 평가한다.

2. 나쁜 방송

1) 오락 부문

□ 각종 미인대회(미스코리아대회 MBC/ 슈퍼엘리트 모델 대회 SBS)

방송사 상업주의의 극치를 보여주다



지난 5월 23일 MBC를 통해 생중계된 미스코리아 대회 중계방송, 9월 12일 SBS에서 방영된 '슈퍼엘리트모델 갈라쇼'와 17일 방영된 '99 한국슈퍼엘리트모델 선발대회'는 방송의 역할에 다시 한번 의문을 갖게 했다. 해마다 개최되는 이들 대회는 여성상품화라는 각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방송의 상업주의가 빚어낸 저질방송의 극단으로 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스코리아 대회는 마치 국가 행사인 양 비쳐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가 이 대회를 생중계하는 것은 방송중계를 통해 얻게 되는 광고수익에 눈이 먼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SBS [슈퍼엘리트 모델대회]의 경우 갈라쇼와 본대회 모두 어린이와 청소년 등 한가족이 TV앞에 앉아있을 시간에 속옷차림에 가까운 출연여성의 신체를 연신 아래에서 위로 훑어내는 선정적 화면을 내보내 많은 시청자들의 항의를 받은 바 있다.

이들 미인대회는 대회 생중계에 그치지 않았다. 자사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 대회와 대회방송을 사전 홍보하는 것은 해마다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관행으로 인해 미인대회가 연예계 진출의 수단으로

인식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여성상품화, 연예계 동용문으로의 전략 외에도 획일적인 미의 기준, 외모지상주의 조장 등의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많은 여성들이 자기개발을 위한 투자보다는 외모성형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풍조도 이러한 대회를 다루는 방송의 태도가 빚어낸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연예정보 프로그램 (섹션TV 연예 통신 MBC, 한밤의 TV 연예 SBS, 연예가 중계 KBS)

정보가 없다. 파파라치만 있을 뿐.

방송사마다 매주 1회 60분 가량 방송되고 있는 연예정보 프로그램은 우리 나라 연예인과 방송계의 문제점을 동시에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다. 스타시스템에 의존, 기획과 내용이 부실한 방송의 문제는 바로 연예정보 프로그램이 가장 앞장 서서 조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 프로그램이 비록 '연예정보 프로그램'으로 불리지만 연예계 '정보'를 다룬다기 보다는 인기연예인을 밀착 취재함으로써 그들의 사생활을 들춰내기에 여념이 없다는 점에서 '파파라치 프로그램'으로 불리는 것도 타당해 보인다. 또 연예인의 사생활, 흥미거리, 신체치수 등 시시콜콜한 내용에 집착하는 것은 바로 방송의 상업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내용은 인격권 침해의 소지도 다분하다는 지적.

이 프로그램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바로 '자사 홍보'. 3사 모두 자사 프로그램 홍보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담고 있다. 일례로 MBC의 [섹션 TV 연예통신]이 11월 17일 방영분에서 자사 특집 드라마인 <허준>에 대해 무려 7분 29초나 다루기도 했다.

연예인들의 인격권 침해, 연예인의 부익부빈익빈 현상 조장, 시청자들의 질 저하 조장 등 방송이 상업적으로 얻는 이익 외에 이들 프로그램의 가치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 일요일 일요일 밤에 (MBC)

99년 오락프로그램의 문제점 총집결판, 시청자 비판이 안 무섭다?

<일요일 일요일 밤에>는 문화방송의 간판 오락프로그램이다.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나름대로 참신한 아이디어와 연출로 오락프로그램으로서의 재미를 더해주었고 『양심냉장고』와 같은 훈훈한 코너 등을 통해 유익한 프로그램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올 한해 이 프로그램은 최소한의 참신한 아이디어나 연출은 찾아볼 수 없고 '몰래카메라', '표절', '가학적 접근' 등을 한해 오락 프로그램이 지적받은 문제점들을 모두 갖고 있다. 더욱 문제는 '일밤'이 이러한 비판에 아랑곳없이 문제점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몰래카메라의 부활과 6월 28일 타방송사에서 발생한 사고 이후 비판받은 가학적 코너들이 '일밤'에서 지속되었던 점이 바로 그 사례다.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신장개업]의 경우도 어려운 서민들을 돕는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상황설정과 요구를 통해 해당 시청자를 우습게 그리는 등 시청자 도구화의 또 다른 형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남희석·이휘재의 멋진 만남 (SBS)

참신한 기획? 따져보니 모방과 고정관념으로 얼룩

<남희석·이휘재 멋진 만남>은 남녀문제를 다루는 방식과 내용이 가벼움 일색으로 비판받는 프로그램이다. 또 최근 비판받고 있는 방송의 '관음증'이 총 망라된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이색커플을 통한 웃음유발이나 남성 진행자가 여성시청자를 주도하는 데이트 등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태도도 빼놓을 수 없는 문제점이다.

이 코너에 등장하는 '실험'과 '몰래카메라'는 같은 방송사의 '기본좋은 밤'이라는 프로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그 내용도 비슷하다. 이미 사생활 침해와 인권침해의 차원에서 비판받고 있는 방식을 시청률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재탕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못 말리는 데이트'는 도무지 정체성을 알기 어렵다. 진행자이자 연예인인 남희석, 이휘재씨와 일반 여성시청자가 낮과 밤으로 나누어 데이트를 즐긴다. 이후 스튜디오에서 여성은 두 진행자 중 한 명을 선택하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우스꽝스러운 복장을 입고 춤을 춰야 한다. 기획의도가 '데이트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으로 알려진 이 코너는 그러나 데이트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다만 데이트 내내 여성을 주도하는 남성, 시청자를 주도하는 연예인이 있을 뿐이다. 이처럼 시종일관 남성이 데이트를 주도하는 것도 철저히 여성과 남성의 고정적인 성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스타 남성과 평범한 시청자 여성'이라는 구도와 잘 어우러져 능동성과 수동성의 사이를 더욱 벌려놓고 있다. 너무 쉽게 이루어지는 스킨십도 이 코너의 가벼움을 더해주고 있다는 지적.

남녀에 대한 고정관념은 내용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여성들에게는 유머와 매너가 넘치며 리더십이 있는 남성이 이상적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이는 남성 입장에서 볼 때 여성에게 선택받기 위한 '소양'처럼 비춰지는 것이다. 여성출연자를 공주처럼 모시는 장면도 같은 맥락이다.

최근 신설, 시청자들의 의견을 콩트로 재구성하는 '시청자 칼럼' 코너의 경우 마치 시청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비칠 수 있지만 실상은 시청자들의 의견에 대한 신중하고 진지한 의견수렴이라기 보다는 또 하나의 유치한 코너의 소재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시청자의견이 예리하고 타당한 것으로 취급되기 보다는 회화화되고 가볍게 취급될 뿐이다.

결국 <남희석·이휘재의 멋진 만남>이 '남녀관계'라는 주제에 대해 시청률과 재미로는 포장했을지 모르지만 남녀에 대한 고정관념, 자사 프로를 모방한 듯한 몰래카메라와 실험 기법 등 따지고 보면 참신한 기획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http://www.sbs.co.kr

2) 비오락 부문

PD수첩 [박정희를 만난 사람들]

(MBC 10월26일 오후 11:00)

최근 경제위기와 더불어 일어난 「박정희 신드롬」으로 박정희와 그의 집권시기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게다가 김대중 대통령까지 과거와의 화해를 강조하며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과거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던 오류를 반복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회비판기능의 대명사 역할을 해온 문화방송(MBC) <PD수첩>이 인간 박정희에 대한 평가를 다뤄 관심을 끌었다. 10·26 20주년을 맞아 기획된 것으로 보이는 이 프로그램은 그 동안 쌓아온 PD수첩의 명성에 걸맞게 박정희 신드롬의 위험성과 그에 대한 허상들을 깨뜨릴 것으로 기대되었다.

하지만 이날 방영분을 시청한 다수 시청자들은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박정희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일개인에 대한 평가를 정리한 이날 방영분은 너무나 개인에 초점을 맞추어 당시 시대적 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보였다. 그에 대해 지극히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인물들, 즉 친분이 있거나 가족들의 일방적인 평가만을 보여주는 등 박정희 주변 사람들의 박정희에 대한 평가를 들여보는 차원을 넘어서 인간 박정희를 영웅화, 우상화 시키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는 비판이다. 이는 한편에서 진행되는 박정희에 대한 진지한 평가작업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기획부터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다. 박정희라는 인물에 대한 공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금 박정희이라는 인물의 개인적 삶을 집중 조명한 것은 시의적으로도 적절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논란의 핵심을 비껴간 불필요한 기획이었다는 지적이다.



지하철 파업 관련 보도 (KBS, MBC, SBS)

4월 있었던 서울 지하철노조의 파업에 대해 방송뉴스는 시민의 불편을 강조하고 철저한 강경대응을 주장하는 등 공정성 상실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언론은 파업당시부터 노동자들에 대한 악의적 왜곡보도를 일삼으며 '일반시민들을 불모로' 하는 보도로 노동자들을 괴롭시킨 바 있다.

지연운행이 진행되던 4월 15일 MBC는 "운행차질 불가피"(4/15 9시 뉴스)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지연운행으로 2호선 삼성역에서 승객들이 항의하고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SBS와 KBS도 각각 16일과 17일 <지연운행에 '분통'>, <시민들 화났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특히 KBS는 22일 <퇴근길 비상>, 27일 <시민지지 없으면...>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함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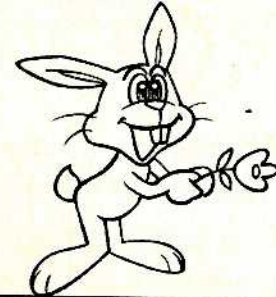
악의적 왜곡보도 사례도 여러 차례 있었다. 4월 20일 방송뉴스가 대표적. 이 보도는 '인위적인 요인에 의한 고장'이라는 공사측의 주장과 이에 기반한 검찰의 발표를 토대로 하여 노조측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마치 노조가 운행을 방해하기 위해 고장낸 것처럼 의혹을 부각 보도했다. 특히 SBS는 공사측의 주장을 비중있게 다루며 노조측이 고의고장을 일으킨 듯이 보도했다.

또 방송뉴스는 규찰대 등의 소수 열성노조원이 기관사 등을 억지로 감금하고 일부 조합원들의 경우, 복귀하면 왕따를 당하기 때문에 억지로 파업하는 것처럼 보도하였다. 특히 KBS의 보도는 여러 신문, 방송 중 가장 악의적이었다. 4월 23일 <"복귀방해" "자진파업">이라는 제목으로 균형을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보도내용은 전혀 판판이다. "외출을 통제하고 또 5명을 묶어서 한 조를 만들어서 서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도명정 서울시 비상수송대책본부 실장의 인터뷰를 내보내고 "또 다른 농성 현장인 서울대에는 업무 복귀자의 명단이 날마다 공개됩니다. 파업 대열을 이탈하기가 그만큼 쉽지 않은 것입니다"라며 "노조측은 어떠한 강제행위도 없다고 주장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지하철 노조의 서형석 대변인의 이어지는 인터뷰 내용은 단지 노조원들의 '주장'으로 만 전달되었고 "그러나 벌써 닷새째인 파업에 상당수 노조원들이 지쳐있습니다"를 기자의 리포트와 파업 노조원의 인터뷰가 이어져 강제행위에 힘을 실어 보도하고 있음은 누가 보아도 알 수 있었다.

노조의 주장은 외면한 채 '파업의 명분이 약하다'거나, '불법파업', '시민불편' 등만 강조하거나, 공공부문의 파업도 인정하고 불편을 참는 프랑스나 영국, 이스라엘의 상황은 외면한 채 11,400명이 해고된 미관제사 파업을 예로 들며 강경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편들기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또 전년도 단체 협약사항이었는데 이행되지 않아 파업의 직접적 발단이 된 체력 단련비 지급문제에 대한 사측의 협약불이행은 언급되지조차 않은 점이나 노조가 증원을 요구했다가 철회한 점 등 변화한 내용의 보도에 인색한 것도 언론의 고의성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어느 때보다도 악의적인 왜곡으로 노동자들을 매도했던 언론, 이제 파업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임을 인정하는 발상의 전환부터 이루어야 할 것이다.



II

'99 이 달의 좋은 · 나쁜 방송



'99 이 달의 좋은 · 나쁜 방송

- 1 ○ 백대개입(MBC)
- 1 × 기본공안법(SBS)
- 2 ○ PDA집 「누가 지역감정을 말하는가?」 (MBC)
- 2 × 작요일인 오늘은 토요일 중 「서바이벌 마팅」 (KBS)
- 3 ○ 주객 사건과사람들 「저상의 방한권」 (SBS)
- 3 × 시사포커스 「한국방송 변역의 바람이 분다」 (KBS)
- 4 ○ 미니시리즈 「학교」 (KBS)
- 4 × 남의식 · 여회계의 멋진남(SBS)
- 5 ○ 교육주간특집 「21C 아름다운 교육공동체를 위하여」 (EBS)
- 5 × 마스크리아 대외 공개방송 (MBC)
- 6 ○ 파워연락처(KBS)
- 6 × 마이클자살공인 공개방송(SBS)
- 7 ○ 대학가동계(EBS)
- 7 × 임택현의 원더풀 투나잇(SBS)
- 8 ○ 그것이 알고 싶다 「외면당한 생존근로자부터 주면들」 (SBS)
- 8 × 일요일일요일밤에 (MBC)
- 9 ○ 여객선말할 수 있다 (MBC)
- 9 × 슈퍼야드모험대 갈라쇼, 99한국수력원자력모험대 선발대회(SBS)
- 10 ○ 연장프로 제3차대 「비상대기 아파는 출산중」 (SBS)
- 10 × PDA집 「박경희를 만난 사람들」 (MBC)
- 11 ○ SBS 8뉴스(구입계 관련 보도) (SBS)
- 11 × 세션TV 연예통신(MBC)
- 12 ○ 슬픈 유혹(KBS)
- 12 × 방송 3사 뉴스보도(제2차 민중대회 관련)



'99 1월의 좋은 방송

진정한 웃음의 의미를 아는 <테마게임>

테마게임 (MBC 토 11:00~11:50)

우리 방송의 오락 프로그램들은 지나친 선정성과 의미 없는 억지 웃음을 요구하는 내용 때문에 자주 비판의 대상이 돼 왔다. 그러나 MBC의 <테마게임>은 오락프로그램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 선입견을 극복하고 재미와 함께 유익함을 갖춘 프로그램으로 꼽힌다. 이에 본회 방송분과는 '다양한 소재를 통해 코

미디의 사회적 역할을 실천'하고 있는 <테마게임>을 1월의 좋은 방송

으로 선정했다. '처세', '왕따', '입양', '성감별 나태' 등 <테마게임>은 사회적 문제

가 되는 소재를 너무 무겁지도, 너무 가볍지도 않게 코미디로 적절히 풀어낸다. 프로그램을 보며 한참을 웃다가도 어느 순간 그 속에서 숨은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건 그 때문이다.

<테마게임>이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비결도 바로 이러한 자연스러운 주제 전달 방식 때문일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방송이 사회에서 나름대로 '성공'했다는 사람들을 카메라에 담고 있을 때 <테마게임>은 풀지, 삼수생, 문제아 등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운다. 그들의 눈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부조리한 면을 들추어내기도, 삶의 의미를 포착해내기도 하는 것이다.

탄탄한 구성력도 <테마게임>의 장점으로 꼽힌다.



여기에는 김진수, 김국진, 김효진, 서경석 등 출연자들의 연기력이 한 몫을 한다. <테마게임>은 주제와 형식면에서 어느 코메디 프로그램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99 1월의 나쁜 방송

시청자를 '실험'하는 <기분 좋은 밤>

기분좋은 밤 (SBS)

최근 방송 프로그램에 일반 시청자들의 참여가 부쩍 늘었다. 이들의 참여는 음브즈맨 프로그램이나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 등에서 이뤄지기도 하지만 대부분 오락 프로그램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오락프로그램의 시청자 참여는 진정한 의미의 '참여'라기보다는 단순한 '출연'에 가깝다. 더욱이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몰래카메라 등은 시청자의 위상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SBS <기분좋은 밤>은 대표적 프로그램이다. 본회 방송분과는 이 프로그램이 시청자의 프라이버시 침해수준이 심각하고 여성과 주부 등 특정 계층을

비하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최악의 조건을 두루 갖추었다고 평가했다.

이 프로그램은 모두 3개의 코너가 있다. '랭크 특급'과 '악마의 속삭임'이라는 코너는 모두 몰래카메라를 이용한다. '일반시청자의 신청'을 받아 또 다른 사람을 '실험'하는 이 코너에서 대상이 된 사람은 일거수 일투족을 관찰 당한다. 이들은 방송사의 각본에 따라 움직이길 요구받고 이 상황에서 당황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면 이것이 바로 '웃음거리'가 된다.

오락 프로그램은 재미있어야 한다는 변명이 결코 합리화 될 수 없을 만큼 이 프로그램은 개인에 대한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시청자의 신청'을 받는 방식도 교묘한 면책행위에 불과하다. 이는 '방송출연'과 '상품'을 미끼로 시청자들을 '몰래카메라 합법화'에 이용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서 신청자는 몰래카메라의

'공범'이 되며 몰래카메라는 더 이상 '방송사만의 책임'이 아닌 것이다.

'악마의 속삭임'이라는 코너의 경우 신청자가 여성이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편을 '실험대상'에 올려 놓는 여성들

은 결국 자신들마저 실험의 대상이 된다. 남편의 반응에 따라 아내는 회로에락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SBS는 '애처가 남편의 모습을 통해 바람직한 남편상을 제시합니다'라고 교묘하게 포장한다.

시청자 주권이 방송개혁의 주요의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시청자를 대상화하는 이같은 프로그램들이 존재하는 한 시청자들의 진정한 권리 찾기는 요원하다는 것이 모니터 요원들의 입장이다.



<http://www.sbs.co.kr>



'99 2월의 좋은 방송

<PD수첩>, 지역감정 실제 규명 노력 돋보여

PD 수첩 '누가 지역감정을 말하는가?' (2월 9일)

지역감정 문제가 세인의 입에 다시 오르내리고 있다. 현 정부의 인사가 호남편중이라며 일부언론이 주장한데 이어 최근 빅딜과정에서는 영남경제 위기로 부각되면서 지역감정문제가 더욱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한나라당이 마산, 구미 집회를 개최, 지역감정 조장발언을 함으로써 지역감정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지역감정은 선거 때마다 악용되어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었다. 그러나 선거철도 아닌 지금 더군다나 경제위기 극복에 온 국민이 힘을 합쳐야 할 이 시



점에서 국민분열을 야기하고 있어 그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난 2월 9일 방영된 PD 수첩의 [누가 지역감정을 조장하는가]편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감정을 야기하는 '주체'를 밝히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발언을 화면으로 보여주며 지역감정 조장의 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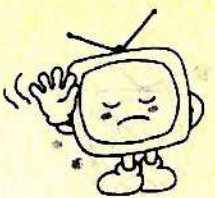
가 누구인가를 밝혀냈다.

또한 여러 관계자 인터뷰와 통계수치를 통해 "구미의 공장을 뜯어다 광주로 옮기려 했다", "빅딜은 경상도 기업 죽이기다" 등의 유언비어가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임을 지적하였다.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돋보인 점은 언론과 정치권이 지역감정 조장의 주범임을 지적했다는 것이다.

이는 영호남의 일반 시민, 영호남 경제지역민 등을 인터뷰하여 일반인이 느끼는 지역감정이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는 점을 밝혀내면서 더욱 분명해졌다.

이러한 내용은 한나라당 집회를 비판없이 부각하고 결과적으로 지역감정 조장에 동조하거나 정치권에 대한 양비론으로 초점 흐리기에 열중한 몇몇 신문보도와 매우 대조적이었다. 그리고 PD 수첩과 같은 접근태도와 실제규명 노력이 언론의 역할에 더 충실하다는 결론이다.



'99 2월의 나쁜 방송

심각한 사회현상을 웃음의 소재로 전락, 인격비하로 웃음 유발하는 <서바이벌 미팅>

자유선언! 오늘은 토요일 중 '서바이벌 미팅'
(토 오후 6:00~7:00)

최근 IMF 구제금융 위기로 불거진 취업난은 이미 사회문제가 되었다. 이와관련 곧 사회의 경쟁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공동체 삶보다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바이벌 미팅>은 최근 사회분위기를 '악용'한 경우로 비판받고 있다. 남을 이겨야만 한다는 경쟁논리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왕따 현상을 응용하여 웃음의 소재로 삼은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첫 번째 문제는 외모를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한다는 점이다. 그것이 설령 현실의 미팅문화에서 드러나는 단면이라 하더라도 그 혼란 대화한 번 없이 외모로만 평가하도록 하는 방식자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물론 '외모로 평가하라고 시킨 바 없다'고 제작자는 반론할지 모른다. 그러나 프로그램 구성, 즉 순간적·일회적 만남 자체가 인간성이나 인품을 파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이러한 외모지상주의는 특히 여성 출연자의 특정 신체부위 클로즈업하는 장면에서 극에 달한다.

두 번째, 특정인을 '왕따 시켜' 탈락시키는 방식도 모자라 소금을 뿌린다거나 매를 때린다거나 하는가

학적 행위는 인격모독에 가깝다. 뿐만 아니라 탈락 후 무거운 음악과 함께 탈락자의 비애를 우스꽝스럽게 비추는 것도 탈락자를 한번 더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의도적 연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 번째 획일화된 출연자 선정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남학생 대부분은 여학생들의 학교보다는 모두 좋은 대학의 학생이다. 여학생은 무용과, 항공운항과, 학교 홍보모델 여대생 등이 많다. 더군다나 여자와 달리 남자출연자는 힘과 장기자랑등을 테스트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야말로 사회고정관념에 근거한 내용이 아닐 수 없다.

KBS가 오락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를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것은 시청료를 받는 공영방송의 자세로서 합당치 못하다는 비판이다.



'99 3월의 좋은 방송

생존권 위협받는 철거민 조명통한 여론환기 <추적 사건과 사람들 '지상의 방한칸'>

<추적 사건과 사람들> 「지상의 방한칸」
(SBS 3월 8일 10:55~1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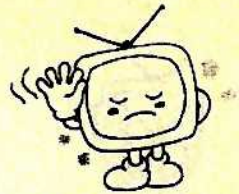
지난 3월 8일 SBS에서 방영된 <추적 사건과 사람들> 「지상의 방한칸」은 우리 언론에서 소외되어 왔던 강제철거 문제를 다룬 프로그램이어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동안 강제철거는 국토개발, 도시사업이라는 명분아래 혹은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미명하에 연일 우리의 주변에서 발생했던 문제였다. 그러나 그 실상이 언론을 통해 일반 시청자에게 전달된 적은 거의 없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프로그램은 소외계층에 대한 접근을 통해 여론환기를 함으로써 방송의 공적기능을 수행했다는 평가다.

이날 방영분에서는 동대문구 전농동, 안양 유진상가의 강제철거 상황을 상세히 보여주었는데 철거 과정에서 자행된 용역업체 직원들의 무자비한 구타와 폭행, 방화 그리고 이를 방조한 경찰의 직무유기를 비판했다. 철거이후 아무런 주거대책없이 강제로 일터와 집을 잃어버리고 한겨울 거리에 내몰린 철거민들의 주장을 전달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예를 들면 마을회의를 하는 주민들의 모습을 진행자의 개입 없이 그대로 보여준 것 등은 전달효과가 높았다.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여러 분야에서 개혁이 논의되고 있지만 유독 철거민 문제는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자본의 개발논리에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이들의 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게 분명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여론조성에 언론이 나서야 할 때다. 「사건과 사람들」 '지상의 방한칸'이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이유도 이러한 언론의 역할을 소화했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있었다는 지적이다. 철거민이 발생하는 구조, 주거정책, 철거용역원들의 불법적 행동 등 보다 거시적인 문제를 부각시키지 못했다는 점이 그렇다. 그러다 보니 철거민들이 주장이 '애환'이라는 다소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비치기 쉬웠다는 것이다. 또 문제해결을 위해 어떠한 조치들이 선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도 부족했다.

그동안 추적 사건과 사람들은 고발을 빌미로 선정적인 주제와 전달 기법으로 적지 않은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을 계기로 이전의 오명을 씻고 시사고발 프로그램답게 사회의 구석구석을 조명하기 바란다.



'99 3월의 나쁜 방송

심각한 사회현상을 웃음의 소재로 전락, 졸속 제작으로 '개악' 방송법 '홍보'한 프로그램 <시사포커스>

<시사포커스> 「한국방송 개혁의 바람이 분다」
(KBS 3월 2일 오후 10:15~11:10)

지난 3월 9일 KBS 1에서 방영한 <시사포커스> 「한국방송 개혁의 바람이 분다」편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을 토대로 구성된 내용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대기업, 언론사, 외국자본이 33%까지 위성방송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막판 졸속으로 처리된 MBC 민영화안 그리고 방송위원회 구성 등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방송개혁의 기본 철학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를 소재로 한 <시사포커스>가 주목받은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날 방영된 <시사포커스>는 방송의 산업논리만을 충실히 전달하고 '개악된' 방송법안을 홍보하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이다. '개혁의 바람이 분다'는 그럴듯한 문구를 달고 있지만 실은 방송이 자본의 지배를 거스를 수 없음을 강조하는 내용이었다. 물론 자본의 힘을 무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영화나 방송 모두 산업논리 이전에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문화로서의 가치다. 따라서 '자본의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문화적 정체성 훼손은 무시한 채 산업논리에 충실한 논의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BBC 등 외국 방송사례까지 제시하며 방송의 디지털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방송여건, 기술수준, 재원의 토대가 마련되지 않아 시기상조라는 목소리가 높다. 디지털화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과제에 대한 언급보다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식의 내용은 졸속



처리된 법안 내용과 닮았다. 결국 이러한 내용은 1공영(KBS) 다민영 체제의 토대를 마련하고 위성방송의 대자본 참여를 열어둔 이번 방송법의 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분석된다.

프로그램 후반에 방송개혁위원회 강원룡 위원장을 게스트로 초청, 법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나누는 것도 방송법안 홍보를 위한 자리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토론은 물론 되질문조차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강 위원장의 답변으로 매듭지어 일방적 홍보와 다를 바 없었다. 게다가 프로그램 중 한 장면이 두 번 나오도록 처리한 편집 등의 방송사고는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갑작스럽게 만들었는가를 유추해볼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은 5공화국 정권하에서 이루어진 '맹전 뉴스'를 연상케 했다. 공영방송 KBS는 방송개혁위원회가 집권여당의 들러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만큼 반개혁적이고 졸속으로 처리된 방송법안을 홍보했다는 혐의를 벗기 어렵게 되었다.



사실적 접근, 연출의 묘미가 돋보인 청소년 드라마 <학교>

미니시리즈 <학교>
(KBS 월, 화 오후 9:50~10:40)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은 많지만 청소년을 주체로 조명하며 생생한 교육현장과 학생, 선생님, 학부모를 두루 다룬 프로그램은 많지 않았다. 게다가 청소년을 시청계층으로 노린 오락프로그램들이 시청률 경쟁의 노예로 존속, 방송에서 청소년은 진지하게 다루어지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난 2월 22일부터 4월 13일까지 방영된 드라마 [학교]는 기존 청소년 드라마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긍정적 평가다. 억지스런 이야기 전개, 스타시스템에 의존하는 출연자 선정 등으로 시청률 경쟁의 노예라 해도 과언이 아닌 일반 드라마와 분명한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또 출연자 대부분이 한번씩 주인공으로 선정된 적이 있는 이 프로그램에서는 '왕따'가 없었다.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을 소재로 한 이 드라마는 현실을 최대한 사실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예를 들어 교재장만, 왕따, 교내폭력, 남선생의 여학생 성희롱, 촌지, 선생님에 대한 짝사랑, 성적문제, 교사 과의, 유흥가 출입, 여학생의 임신과 중절 등 실로 많은 문제들을 다루었다. 그 내용도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하였고 무엇보다도 '복선'을 이용한 드라마 구성은 연출의 묘미를 돋보이게 했다. 기존의 '모범생' 위주의 이야기 전개는 없었다. 반장조차 모범생과는 거리가 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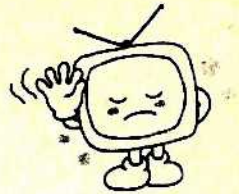
이 프로그램을 칭찬해주어야 할 이유는 또 있다. 각 방송사가 간판 프로그램을 주로 편성하는 9시 뉴스 이후 시간대 편성이 바로 그것이다. 이 시간대는 청소년은 물론 학부모, 교사 등 많은 계층들이



학교 현실을 관심있게 바라보기에 좋은 시간대라는 점에서 그동안 찬밥신세를 면치 못했던 청소년 드라마의 '명예회복'이다.

이밖에도 연기자들의 뛰어난 연기도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각 회마다 주연급으로 다루어졌던 학생들의 합리연기가 매우 자연스러웠다는 평가다.

반면 아쉬운 점도 지적 받았다. 모든 문제 해결이 수월하게만 매듭지어진다는 점, 특정 인물의 성격이 과장, 이로 인해 내용의 전달보다는 인물의 개성을 부각하는데 치우쳐 가는 경향을 보였던 게 비판의 대상이다. 이러한 점을 빼면 드라마 <학교>는 근래에 보기 드문 좋은 드라마로 보아 무리가 없다. 이후 방영될 <학교> 후속 프로그램에도 기대를 걸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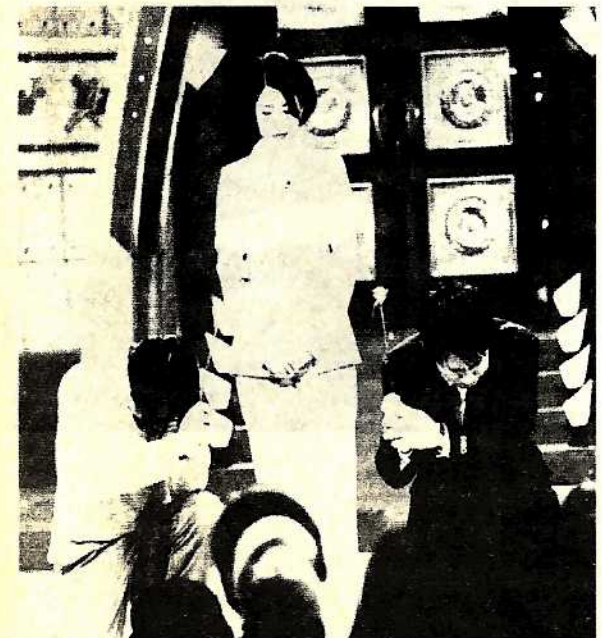


참신한 기획? 따져보니 모방과 고정관념으로 얼룩, <멋진 만남>

<이휘재 남희석의 멋진 만남>
(SBS 토 저녁 9:50~10:50)

방송프로그램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표적인 소재가 바로 '사랑, 연애'와 같은 남녀 문제다. 그래서인지 많은 방송 프로그램들이 남녀문제를 소재로 한 프로그램들을 제작하고 있다. 이때 이런 '남녀관계'를 어떻게 접근하고 다뤘느냐에 따라 "좋은 방송"과 "나쁜 방송"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다. 말하자면 '사적인' 성격이 강한 남녀문제의 본질이 방송에서 어떻게 그려지고 얼마나 잘 보호받느냐에 따라 그렇다. 허구성이 허용되는 드라마가 아닌 바에야 이러한 점은 매우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휘재, 남희석의 멋진 만남>은 남녀문제를 다루는 방식과 내용이 가벼움 일색으로 비판받는 프로그램이다. 또 최근 비판받고 있는



방송의 '관음증'이 총 망라된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이색커플을 통한 웃음유발이나 남성 진행자가 여성 시청자를 주도하는 데이트 등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태도도 빼놓을 수 없는 문제점이다.

이 프로그램은 3가지 코너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해석남녀'는 특수한 상황에서 남자와 여자는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를 실험한다. 이 코너에 등장하는 '실험'과 '몰래카메라'는 같은 방송사의 '기분좋은 밤'이라는 프로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그 내용도 비슷하다. 이미 사생활 침해와 인권침해의 차원에서 비판받고 있는 방식을 시청률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재탕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두 번째 코너인 '뒤바뀐 남과 여'는 기존 사회적 통념에서 벗어나는 커플, 이색커플 등을 소개하며 웃음을 자아낸다. 인상이 무서운 남자와 매우 예쁜 여자, 똥똥한 남자와 마른 여자, 약한 남자와 무술 유단자인 여자 등이 그 출연대상이었다. 그러나 고정관념을 깨려는 노력보다는 오히려 고정관념을 평가 잣대로 들이대고 있다. 즉 이 커플들의 교제를 그들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고정관념에 의한 잣대를 적용, '특이하다'는 점을 우스꽝스럽게 부각시키고 있다는 말이다. 동시에 출연자를 회화화시켰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다. 결국 출연한 '이색 커플'은 통념에 젖은 일반인에게 웃음을 유발하는 '웃음거리'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묘사될 뿐이었다.

마지막 코너인 '못 말리는 데이트'는 도무지 정체성을 알기 어렵다. 진행자이자 연예인인 남희석, 이



교육 개혁에 기여하는 프로그램, 확대되어야

교육주간특집 <21C 아름다운 교육공동체를 위하여>
(EBS 5월 12일 ~ 14일, 오후 10:40 ~ 11:20)

지난 5월 12, 13, 14일 3일간 교육방송에서 교육주간 특집으로 방영한 <21C 아름다운 교육공동체를 위하여> 는 기존 청소년 프로그램의 한계를 뛰어넘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평가받았다. 5월 17일 '청소년 문화에 대한 진지한 접근으로 다시 출발하라'는 제목하에 방송 3사의 청소년 프로그램 모니터 보고서를 낸 바 있는 본회 방송모니터팀은 이 프로그램을 이 달의 좋은 방송으로 선정하였다.

위의 보고서에서 지적한대로 기존 청소년 프로그램 대부분은 청소년을 선도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기성세대의 시각을 벗어나지 못했고 소재 역시 '학교'라는 제도권 교육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21C 아름다운 교육공동체를 위하여> 는 청소년들의 시각에서 그들의 문화를 조명했다는 점이 가장 돋보였다. 또 기존 학교교육의 문제점 점검, 대안교육 소개 등도 좋은 내용으로 내놓을 수 없다.

1부 [달라지는 아이들 - 10대 문화 보고서]에서는 영화적인 청소년, 비디오 매거진 제작자, 게임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자신의 소질을 개발하는 창의적 학생들을 집중조명했다. 학교성적을 청소년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적용했던 기성세대의 관점을 파기하는 것이었다. 물론 이들이 다수 청소년상과 거리감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으나 반드시 다수를 조명하는 것이 좋은 프로그램의 조건이 아니라는 게 본 모니터팀의 결론이다. 오히려 창의력을 심분 발휘하며 살아가는 몇몇 청소년의 모습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에게 내재되어있는 장점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2부 [학교 밖의 아이들 - 홈스쿨링]의 경우 홈스쿨링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도 있었다. 그러나 '학교가 달라져야 한다', '변하지 않으면 안된다' 등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교육 사례로는 적절하게 그렸다는 평가다. 이 하나의 사례에서 그치지 않고 3부 [변화하는 학교 - 새 교육 공동체]에서는 대안교육을 실행하는 학교들을 취재, 향후 교육의 방향을 제시한 것은 교육개혁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겠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교육방송에서 뿐만 아니라 주요 공중과 방송에서도 적극 기획, 방영되었으면 한다.



지 모르지만 남녀에 대한 고정관념, 자사 프로를 모방한 듯한 몰래카메라와 실험 기법 등 따지고 보면 참신한 기획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휘계씨와 일반 여성 시청자가 낮과 밤으로 나누어 데이트를 즐긴다. 이후 스튜디오에서 여성은 두 진행자 중 한 명을 선택하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우스꽝스러운 복장을 입고 춤을 춰야 한다. 기획의도가 '데이트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으로 알려진 이 코너는 그러나 데이트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다만 데이트 내내 여성을, 시청자를 주도하는 남성과 연예인이 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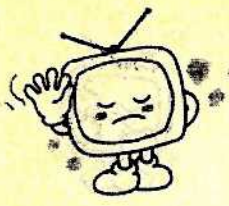
사실 이러한 코너는 사적인 영역이자 다각적인 이해관계와 세밀함이 필요한 남녀관계를 안방 시청자를 등에 업은 카메라가 훑쳐보며 공개화하는 것이다. 몰래카메라뿐만 아니라 이러한 형식도 관음증에 빠진 최근 방송계의 한 단면이다.

또 시종일관 남성이 데이트를 주도하는 것도 철저히 여성과 남성의 고정적인 성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스타 남성과 평범한 시청자 여성'이라는 구도와 잘 어루러져 능동성과 수동성의 사이를 더욱 벌려놓고 있다.

남녀에 대한 고정관념은 내용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여성들에게는 유머와 매너가 넘치며 리더십이 있는 남성이 이상적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이는 남성 입장에서 볼 때 여성에게 선택받기 위한 '소양'처럼 비춰지는 것이다. 여성출연자를 공주처럼 모시는 장면도 같은 맥락이다.

결국 <이휘계·남희석의 멋진 만남>이 '남녀관계'라는 주제에 대해 시청률과 재미로는 포장되었을





여성 상품화에 앞장서는 '공영방송' MBC

<미스코리아 대회 중계방송> 등
(5월 23일 오후 6:20~9:00)

지난 5월 23일 MBC를 통해 생중계된 미스코리아 대회 중계방송은 방송의 역할에 다시 한번 의문을 갖게 했다는 지적이다. 해마다 개최되는 미스코리아 대회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국가 행사인양 비쳐지는 이유는 바로 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가 이 대회를 생중계 하는 것은 방송중계를 통해 얻게 되는 광고수익에 눈이 먼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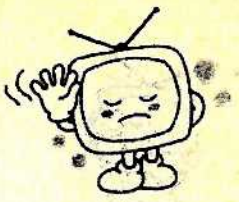
MBC는 대회 생중계에 그치지 않았다. 이미 5월 17일 토크쇼 <백야>(오후 11:00~50)를 통해 미스코리아 후보들의 합숙현장을 스케치했고 22일에는 전야제를 통해 그리고 대회 다음날인 24일에는 <임성훈 이영자입니다>(오전 9:45~10:45)와 <백야>를 통해서도 미스코리아를 다루었다. 이전의 경험을 볼 때 이후 많은 오락 프로그램들이 미스코리아를 모셔가기 경쟁을 벌일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와 같은 방송태도가 갖는 가장 큰 문제점은 미인대회를 정당화한다는 점이다. 대표적 미인대회인 미스코리아 대회는 획일적인 미의 기준, 외모지상주



의 조장, 여성상품화, 연예계 등용문으로 전락 등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많은 여성들이 자기개발을 위한 투자보다는 외모성형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풍조도 이러한 대회를 다루는 방송의 태도가 빚어낸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MBC는 4월 27일 <PD수첩>을 통해 성형수술의 허와 실을 점검하고 내적인 아름다움보다 외형적 미를 중요시하는 세태를 비판한 바 있다. 뉴스보도에서도 이와같은 내용을 다룬 바 있다. 한편에서는 미인대회 중계방송을 통해 이를 조장하고 한편에서 이를 비판하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두 번째, 중계방송을 통해 보는 미인대회에서 국가적 경제위기 사태라는 절박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는 지적이다. 대회 사회자였던 백지연씨는 무려 5번이나 의상을 갈아입었으며 대회출전자들의 화려한 의상은 늘어가는 실업자와 노숙자 등의 사회문제에 아랑곳없었다. 다같이 국난극복에 참여하자고 여론 조성에 나섰던 방송 아닌가. 최근에는 파업하는 지하철 노동자들을 향해 경제위기 운운하며 비난에 열을 올린 MBC 뉴스보도를 많은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이번 중계방송에서는 이전보다 더욱 선정적인 화면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수영복을 입은 후보자들의 포즈는 물론 수영장에서 비를 맞는 장면 등은 선정적인 영화장면, 노래방에서나 본 듯한 화면으로서 '물' 자체가 선정적 장면 연출에 빈번히 이용되는 소재이기도 하다.

또 후보자들과의 인터뷰는 형식에 불과했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간과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엇보이는 인터뷰는 그러나 취지를 살리기에 역부족이었다. 대개의 답변이 수준이하였고 후보들의 의식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면 전야제에서 한 후보는 성희롱범을 어떻게 처벌하겠느냐는 질문에 '성은 남자들의 본능이다... 강하게 다루어야 한다. ... 광화문 네거리에 세워서 똑같이 성희롱을 해야한다'는 요지의 답변을 했다. 또한 답변의 내용이 심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일례로 일차 관문을 통과했던 후보 중 제주 4·3 항쟁 진상규명이나 농촌문제를 언급한 후보들은 탈락했다.

5월 15일 문화일보홀에서 개최되었던 '안티미스코리아' 대회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대회에 대한 비판여론은 이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

타내고 있는 것이다. 방송은 이제 비판여론에 주목하고 미인대회를 비판하는데 나서야 옳다. 전야제, 중계방송도 모자라 오락 프로그램을 통해 모셔가기 경쟁을 벌이는 것은 '공영방송 MBC' 라는 이름을 부끄럽게 하고 있다.





진지함과 재미를 두루 갖춘 유익한 프로그램, <파워인터뷰>

<파워인터뷰>

(KBS 2, 토 저녁 9:00~9:50)

오랜만에 시청자들은 유익한 오락프로그램을 만났다. 매주 토요일 KBS 2TV에서 방영되는 <파워인터뷰>. 이 프로그램은 최근 범람하고 있는 '말 잔치' 토크쇼의 한계를 극복하고 진지함과 재미를 두루 갖춘 토크쇼로 평가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토크쇼는 지나치게 가벼운 내용과 신변잡기로 흐르기 쉽다. 편안한 대화분위기는 자칫 출연자를 비하하거나 혹은 지나치게 띄워주는 데 이용되기도 한다. 이는 시청자들의 의식을 한없이 가볍게 만들어놓음으로써 '바보상자' 텔레비전의 모습을 여지없이 드러낸다는 지적이다. 편안한 대화형식이 게스트로부터 솔직하고 심도 깊은 답변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대부분의 토크쇼는

부작용만 드러낸 셈이다.

이와달리 파워인터뷰는 편안한 대화분위기보다 게스트 한 사람에 대해 진지하고 예리한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듣는 인터뷰 형식을 적극 활용했다. 다소 딱딱해질 수 있는 형식상의 단점은 오히려 솔직하고 심도깊은 이야기들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게다가 출연자들(패널, 게스트)의 재치있는 입담이 재미를 더해주기도 한다. 이 프로그램의 장점을 몇가지로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패널 및 게스트의 직업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이다. 유명 연예인 일변도의 출연자 선정을 보이고 있는 프로그램은 출연자 자체만으로도 최소한의 시청률은 확보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내용으로 승



부하기' 보다는 '출연자로 때우기'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양한 출연자 선정이 갖는 의미는 두가지다. TV에 대한 다양한 계층의 접근이라는 것과 출연자에 의존하기보다는 내용으로 승부할 수 있다는 점이 그렇다.

둘째, <파워인터뷰>는 소박하고 단조로운 무대연출을 선보이고 있다. 화려한 세트나 조명, 진행자의 의상, 그리고 밴드가 있는 무대는 아무래도 시청자의 이목을 분산시키기 마련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파워인터뷰>의 무대연출은 TV출연자와 시청자 모두를 '토크'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후 교체된 패널구성을 보면 이전에 예리한 질문이 돋보였던 문화평론가 하재봉, 개그맨 김생민씨 등이 교체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두 번째 최근 출연진이 인기인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점. 첫 방영이후 지난 6월 12일까지 총 28회동안 21종류의 직업을 가진 게스트가 초대된 바 있다. 오지탐험가나 산악인, 증권사 사장 등 방송에서 보기 어려운 직업인들을 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 게스트를 보면 강산애, 박광정, 명계남, 이수만 등이고 7월에는 김석훈(7/3일 출연예정), 김창완(7/10일 출연예정), 박중훈(7/17일 출연예정)씨가 출연할 예정이다. 억지웃음을 유발하려는 듯한 자막도 이전에 볼 수 없던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시청

파워인터뷰 POWER INT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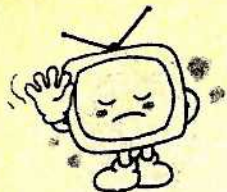
최근 인기인 집중경향 비판에 주목하길

그러나 이 프로그램 역시 비판받을 부분이 있다. 우선 패널의 문제다. 애초 문화평론가, 형사, 개그맨 등 다양한 직업의 패널이 일대일 토크쇼에서 야기될 수 있는 질문내용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다양한 패널 형식이 다양한 내용까지 담보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패널의 특성이 살아난 질문이 어렵다. 예리한 질문으로 게스트를 곤욕스럽게 하는 반면 지나치게 띄워주는 분위기도 보인다. 어찌보면 파워있는 사람들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이기에 갖는 한계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띄워주기식 분위기가 지나치면 시청자들에게는 인위적인 연출로 느껴질 것이다. 더 나아가 이 프로그램의 장점, 즉 날카로운 질문과 솔직한 답변들이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최근 7월이

를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일반 토크쇼와 확실히 차이를 보였던 이 프로그램의 장점이 퇴색, 오랜만에 참신한 토크프로그램을 만난 시청자들을 실망시키는 흐름이 아닐 수 없다.

독특한 형식과 깊이있는 내용의 파워인터뷰. 위에 지적한 비판들을 겸허하게 수용한다면 보다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덧붙여 각 방송사의 토크프로그램이 '파워있는' 이들에게만 집중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보다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토크 프로그램(토크쇼, 토론프로)은 어느 장르보다 저렴한 제작비에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송의 공론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긍정적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금세기 최대공연'(?), 최악의 중계방송

<세계 전쟁 희생자와 불우 어린이 돕기를 위한 마이클 잭슨과 친구들 공연 What More Can I Give> 중계방송 및 관련 방송

지난 6월 25일 잠실 주경기장에서는 '마이클 잭슨과 친구들' 공연이 열렸다. SBS는 이 공연을 중계방송 하였다. 그러나 공연 자체는 차치하고서라도 진행자의 자질문제를 비롯, 예고방송까지 어겨가며 자사 프로그램을 통해 홍보하는데 열중한 SBS는 결국 매끄러운 공연중계를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시청률에만 신경쓴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시청률이 광고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고려한다면 SBS의 태도는 시청자에 대한 배려보다는 상업적 이익에 더 관심을 두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날 공연 중계방송은 시청자들에게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카메라는 무대 세팅이 진행되는 동안 비출 것이 없을 때면 하늘에서 잡은 시꺼먼 주경기장 야경을 종종 비추었는데 이 또한 사전에 준비가 미흡했음을 여실히 드러내주는 부분이었다. 사전에 준비한 영상물과 사회자의 즉석 멘트로 예상보다 길어지는 공백을 매우 지 못하게 되면 보잘 것 없는 경기장 야경만을 원거리로 비추는 것이다. 사전에 공백 기간이 다소 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가수나 곡목의 내용을 소개할 수 있는 탄탄한 대본을 준비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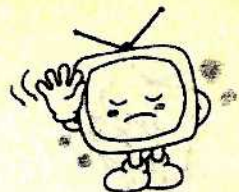
사운드 또한 주말의 가요 프로그램 녹화 방송만도 못한 수준이었다. 현장분위기를 고스란히 전달하기는 무리였음을 감안하더라도 이날 중계방송의 사



운드는 안방 시청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적이다.

통역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문제였다. 이날 공연에서는 S.E.S와 H.O.T, 그리고 유진박을 제외하고는 영어권, 프랑스어권의 가수들이 대거 출연했다. 그러나 방송상에서는 이들이 공연 가운데 몇마디 하는 말들이 통역 없이 그냥 내보냈다(공연 현장에서 김연주씨는 통역을 해주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 특히 보이즈투멘이나 머라이어 캐리, 바네사 메이는 단순한 인사말 뿐만이 아니라 제법 의미있는 멘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통역이 전혀 없었다. 마지막 마이클 잭슨 공연 때는 사회를 맡은 양승연 아나운서가 동시통역을 했으나 매끄럽지 못했고 부분적으로 발체되어 이루어졌다. 그나마 알아듣고 있던 시청자들마저도 이해하는데 방해받을 뿐이었다.

차라리 처음부터 곡목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출연자들의 멘트가 화면 아래 자막으로 나왔으면 더 나을 뻔했다. 그러나 정작 자막 사용은 적절히 사용되지 못했다. 공연 중간 중간에 화면의 3분의 2를 넘게 차지하는 자막의 내용을 보면 '자유수호전쟁 6·25.....희생자들을 기리는.....'과 같은 내용이 많다. 이날 공연은 6월 25일 이루어져 애초부터 말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SBS가 이러한 비판을 지나



치게 의식하여 내보낸 것으로 보이는 위와 같은 자막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었다.

SBS는 물론 최근 과도한 자막 사용으로 시청자들을 우롱한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 방송이 앞으로는 적절한 시기와 내용을 선별하는 등 자막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공연 관련 홍보 프로그램에서 나타난 문제점 - 「한밤의 TV연예」(SBS)

6월 24일 SBS <한밤의 TV 연예>에서는 '마이클 잭슨과 친구들' 공연 리허설 장면을 방송한 바 있다. 여기서는 거의 한시간 가량을 별 내용도 없이 그저 현지의 상황을 비춰주는 것으로 방송을 내보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날 <한밤의 TV 연예>는 이승환의 라이브 공연 소식을 방송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그런데 마이클 잭슨 공연 리허설 중계에 밀려 미리 예고된 내용을 방송하지 않은 것이다. <한밤의 TV연예>가 예고내용을 방송하지 않은 경우는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한밤' 제작진은 이미

지난 3월 20일 <열린 TV 시청자 세상>에서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이를 어긴 셈이다.

SBS가 대공연을 중계한다는 사실에 너무 흥분한 것은 아닌가. 방송은 약속이다. 특히 시청자와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기본적인 방송 규칙까지 무시한 SBS는 시청자들의 비판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한편 공연내용을 보도한 일부 보도 프로그램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SBS 8시 뉴스>와 <KBS 뉴스 투데이>가 바로 그것. 이 두 프로는

공연 상황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대만의 여가수 코코리만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방송했는데 특히 코코리의 관능적인 공연 모습만을 반복해서 보여준 것이다. 이는 여성을 하나의 불거리 이상으로 보지 않는 기존의 남성 중심적 시각의 발로라는 점에서 마땅히 비판받아야 할 것이다.



TV 화면



다양한 대학문화 반영, 비주류에 대한 주목 돋보이는 <대학가 중계>

<대학가 중계> (EBS 일 오전 9:50~10:50)

대학을 소재로 한 방송프로그램 대부분이 대학생과 대학사회의 이미지를 왜곡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본회 모니터팀 역시 지난 2월 23일 발표한 '대학생 참여 프로그램 모니터 보고서'에서 대학생 프로그램이 "대학문화를 왜곡하고 오락 장르에 편중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비단 최근의 문제점만은 아니다. 80년대 암울한 시기에서도 청춘드라마가 난무했고 지금도 대부분의 대학생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오락지향적인 게 사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EBS에서 방영하는 [대학가 중계](매주 일 오전 9:50 ~ 10:50)는 기존의 대학생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극복한 좋은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학사회의 다양한 문화와 현안을 다루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흔히 대학생들을 '대상화'하는데 그치는 프로그램과 달리 대학생들의 시선을 중시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적극 담고 있다. 민연련 방송모니터분과는 이 프로그램을 이 달의 좋은 방송으로 선정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크게 세가지 꼭지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대학가의 이모저모를 요약 전달한 후 '캠퍼스 라이프'를 통해 대학가의 특정한 현상이나 사람을 심층분석하고 있다. 7월에 방영된 내용만 보아도 '인문학의 위기...' (7/4) '입양 대학생' (7/11), '시간강사 이야기' (7/18) 등 다양하다. 지난 7월 18일 방영된 '시간강사 이야기'의 경우 대학사회의 주요구성원 이면서도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연구하는 시간강사들의 고충을 담아내었다. 주로 시간강사 당사자들의 입을 통해 직접 전해듣는 현실이 시청자들에게 공감

대를 불러일으켰다는 평가다. 또 6월 20일 방영분의 경우 300여일 동안 조계사에서 농성하고 있는 한총련 수배자들을 다루었는데, 여전히 존재하는 대학사회의 암울한 단면을 잘 반영했다는 점에서 역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두 번째 꼭지인 '시선'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대학가의 영상동아리를 소개하고 대학생들의 참신함이 돋보이는 단편영화나, 애니메이션 등을 보여준다. 시청자에게는 영화한편을 감상하는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다. 더 나아가 모방이 범람하는 현실에서 창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주는 기회이기도 하다.

세 번째 다루어지는 내용은 [비주류와 청년정신]이다. 흔히 방송은 '주류문화'에 주목하고 이를 반복해서 다루는 경향이 짙다. 방송의 권력 지향적 속성이 드러나는 측면이기도 하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기 보다는 '태증상업주의'에 기반한 문화가 많았던 게 사실이고 대학생 프로그램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대학생 장기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에서 '연예인 모방'이 비일비재했던 것은 이를 잘 반증해준다.

이러한 측면에서 [비주류와 청년정신]이 다루는 내용은 새로운 시각을 드러낸 참신한 기획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다룬 내용을 보면 "박종철 출판사" (7/18), "재즈문화(7/4)", "동성애자 이야기(7/11)" 등이다. '재즈문화'를 제외한 나머지 소재는 과감하다고까지 평가받고 있다. 특히 [박종철 출판사]의 경우 단순히 출판사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박종철'이라는 인물이 상징하는 80년대의 대학사회를 그리는



등, 심도 깊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수배자, 동성연애자, 시간강사, 비주류문화 등 참신한 기획과 풍부한 내용으로 평가받는 대학가중계. 그러나 다루는 대학이 대부분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대학이라는 점은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는

다. 이 프로그램 정도라면 지방대학으로서 겪는 어려움이나 차별대우 등 우리 대학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접근하는 내용을 다룰 수 있으리라 본다. 앞으로 더욱 다양하고 깊이 있는 내용을 고민하고 장수하는 프로그램으로 남길 바란다.

<성명서> '대학가 중계' 살려야 한다

제목 : EBS [대학가 중계](일 9:50 ~10:50) 내용 변경방침에 대한 시청자 단체 입장

교육방송에서 매주 일요일 방영하는 [대학가 중계](오전 9:50 ~ 10:50)는 오락 장르에 치중되고 정보전달에 그쳤던 기존의 대학가 프로그램을 극복한 좋은 프로그램이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거의 처음으로 접해 본 좋은 '대학가 프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청자의 반응도 대체로 긍정적이다. 지난 8월 2일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방송모니터분과는 [이달(7월)의 좋은 방송]으로 '대학가 중계'를 선정 발표했고, PC 통신상에 올라온 시청 소감 역시 대부분 이 프로그램을 긍정 평가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오는 9월부터 이 프로그램의 형식과 내용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학가 정보' 프로그램으로 전환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대한매일 8월 18일자(15면)에 의하면 "EBS는 이 프로를 광고나 협찬을 받기 쉬운 내용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한다. 그리고 "프로의 제작을 상업성이 짙은 외주 프로덕션 2곳에 넘기기로"했으며 "대학홍보, 진학정보 등을 다루게 될 것"이라는 EBS 관계자의 말을 이 신문은 전하고 있다.

우리 시청자 단체는 이러한 EBS의 방침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내용과 형식을 전면 수정하려는 EBS의 방침은 '대학가 중계'라는 타이틀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현행 프로그램의 폐지와 다를 바 없다.

EBS가 재정난을 겪고 있다는 점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좋은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협찬을 받기 쉬운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여 재정난을 극복하겠다는 발상은 EBS가 교육방송인지 상업방송인지 분간기 어렵게 하는 조치다.

언제까지 대학생 프로그램은 오락 아니면 대학홍보, 기껏해야 정보전달에 그칠 수밖에 없는가. 기존의 형식과 내용으로 한국대학의 현실과 다양한 대학문화를 얼마나 표현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학가 중계는 대학생 프로그램의 한 획을 그을 만한 좋은 프로그램임이 분명하다.

EBS의 이번 방침은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EBS의 다수 프로그램들이 언제 또 변질될 지 모른다는 측면에서도 우려스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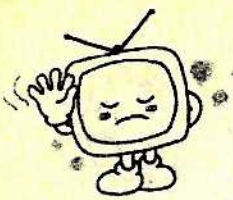
우리 시청자 단체는 EBS가 '대학가중계'를 변경시키려는 방침을 재고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또 다른 방송사에 비하면 다수 시청자를 확보하고 있지는 않지만 적지 않은 시청자들이 EBS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EBS는 유념해야 할 것이다.

우리 시청자 단체는 MBC, KBS, SBS 방송3사의 대학생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EBS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대학가 중계'와 같은 좋은 프로그램을 제작 편성했다. 그러나 공영방송 KBS, MBC는 좋은 대학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진지하게 묻고 싶다. 특히 대표적 공영방송 KBS는 지금까지도 대학으로부터 협찬받는 대학가 프로를 만들고 있고 대학프로의 오락화를 어느 방송사 보다 앞장서서 실천하고 있다. 상업방송 SBS 역시 다른 기준으로 평가한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상업성에 집착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 시청자 단체는 다수 시청자를 확보하고 있는 MBC, KBS, SBS 방송 3사가 대학문화와 대학생의 이미지를 왜곡하는 프로그램을 자제하고 EBS의 [대학가 중계] 같은 프로그램 기획에 적극 임해줄 것을 당부하고자 한다. 동시에 EBS는 '좋은 프로그램은 단명한다'는 선례를 남기지 말기 바란다.

1999년 8월 18일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외 11개 단체



'시사정보 토크쇼'로 둔갑한 저질 쇼 <임백천의 원더풀 투나잇>

<임백천의 원더풀 투나잇>
(SBS 일 오후 11:00~12:10)

<주병진의 데이트라인>을 개편한 <임백천의 투나잇쇼>는 비록 '시사정보 프로그램'을 표방했지만 실제 내용과 구성을 보면 저질 오락 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SBS는 "우리 주변의 작은사건, 소박한 인물들까지도 큰 공감으로 대하고 시사문제와 정보를 부드럽고 재미있게 아주 색다르게 푸는 것"이라며 이 프로그램의 기획의도를 설명했다. 그러나 프로그램 모니터 결과 시사문제와 정보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오히려 잡담수준의 토크와 흥미성 소재에 치우치는 경향을 보인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 7월 25일 방영분을 본 많은 시청자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어른들을 위한 동화]에서 서민들의 애환을 우스갯거리로 만드는가 하면 영화 '트루먼쇼', '조지오웰의 소설 1984' 등 감시통제사회를 연상케 하는 '김종석 입시 준비과정 감시'는 SBS가 방송의 사회비판감시기능을 오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했다. 본회 방송모니터분과는 이 프로그램을 이 달의 나쁜 방송으로 선정하였다.

시민들의 애환을 우스갯거리로 만든 [어른들을 위한 동화]

[떴다! 속옷장수]는 노점상들을 대상으로 '늑대와 양치기 소년'을 재구성한 내용이었다. 말하자면 "떴다"라고 외치는 당국의 노점상 단속행위를 동화에 맞게 재연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자신의 생계를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들의 애환을 우스갯거리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화면에 등장하는 노점상들을 향한 몰래카메라라면 더욱 심각한 인격권 침해이며 몰래카메라가 아니더라도 일반 노점상들은 물론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는 마찬가지다. 게다가 속옷장수가 여성의 속옷으로 장난치는 모습은 여성시청자에 대한 모독에 가깝다. 차안에서 이를 지켜보며 즐기는 진행자와 게스트 모두 '가학중' 환자에 다름없다는 강한 비판이다.

단순히 동화의 내용을 베꼈다고 해서 그것이 동심의 세계를 통한 정서함양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어른들을 위한' 동화가 아님은 말할 것도 없다.

감시·통제 즐기자는 위험한 발상, [김종석 대학가다] 즉각 폐지해야

'김종석 대학가다'는 최근 어느 연예인 못지 않게



유명세를 타고 있는 한 매니저(사실 그는 이제 연예인과 다를 바 없다)가 대학진학을 위해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일거수 일투족을 관찰하는 코너다. 그러나 말이 관찰이지 그 대상자에 대해서는 명백한 사생활 침해이며 시청자 모두를 집단가학중 환자로 만들고 있다. SBS는 대상자와 합의하에 관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할지 모르나, 다음과 같은 두가지 측면에서 잘못된 주장이다.

먼저 방송사와 연예인은 애초부터 병렬적 관계가 아니다. 방송사 정도의 권력집단이라면 한 연예인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얘기다. 그리고 실제 내용을 보아도 연예인을 얼마나 비하시켜 다루는지 여실히 드러난다. 7월 25일 방영분에서 김종석 씨의 인기배경을 나열하는 나레이션을 잠깐 보자. '그가 어설피 보이고 무식함을 숨기지 않기 때문'이라는 내용은 명백히 인격 모독이다. 또한 그가 고등학교 다닐 때의 성적을 공개하고 행동특성을 보여주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이때 '우등생과 전혀 거리가 멀다'는 나레이션으로 웃음을 자아냈다. 실력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도 채점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가 정말 실력이 없음을 증명해 보이려 했다. 결국 '동의'라는 방식이 형식적이고 교묘한 장치에 불과할 뿐 그 자체만으로 위와 같은 인격권 침해의 내용을 합리화할 수 없을 것이다.

두번째, 이 코너는 단순히 김종석씨만을 관찰하는 게 아니다. 김종석씨가 다니는 학원 수강생, 학원강사는 물론 김종석씨가 이동하는 화면에 비치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사생활 침해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 프로그램은 자신의 의지를 통한 인간승리를 보여준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걸고 있으나 이 또한 허울에 불과하다. 실제로 의지나 극복과정을 보여주기 보다는 김종석씨가 공부하는 모습을 시종 일관 우습게 전개하고 있다. 만일 이렇게 공부해서

대학에 갔다고 치자. 그 짧은 기간동안 장난스럽게 공부하는 과정이 하나의 유형으로 비쳐질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입시준비과정에 대해 명백히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것이며 한편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수험생들, 특히 열심히 공부하고도 떨어지는 수험생들에게는 매우 불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마지막 코너인 『너희가 그들을 믿느냐』는 '홍미에 집착하는 집단토크쇼'로 볼 수 있겠다. 이 코너는 미인대회 참가자, 코미디언, 연예인 매니저, 귀신과 UFO 경험자 등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 10~20명 정도를 출연시켜 여러 가지 질문답변을 한다. 미인대회 출연자들에게 살빼기나 화장법 등에 대한 질문으로 성상품화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는 이 코너는 시종일관 선정적 내용과 가벼운 잡담 수준의 내용으로 얼룩져 있다. '코미디언을 웃기는 코미디언이 누구냐' 등의 질문도 그 집단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보다는 잡담수준으로 흐르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또 이들을 통해 그 집단의 특성을 일반화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내용을 통해 볼 때 '이 프로는 결코 시사 정보쇼라고 보기 어렵다. SBS가 편성비용을 의식한 조처라면 '시사 정보쇼'라는 타이틀에 맞게 내용을 전면 수정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오락 프로그램을 표방하는 것이 더 솔직한 태도일 것이다. 이때 주의할 것이 있다. 오락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위에서 지적한대로 서민의 애환을 우스갯거리로 그리거나 인격과 사생활 침해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태도는 옳지 못하다.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정서순화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 웃음을 유발하는 과정에 좀 더 신경써야 할 것이다. 당장 웃고나서 불쾌한 감정을 갖게 하는 것은 방송의 진정한 오락기능으로 보기 어렵다.



성역을 깬 분석과 비판, 구체적 실례 돋보인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외면당한 생존권-미군부대 주민들'
(SBS 8월 28일 토요일 오후 10:50~11:50)

지난 8월 28일에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 "외면당한 생존권-미군기지 마을의 분노"(SBS)편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성역이나 다름 없었던 미군기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 좋은 프로그램으로 평가받았다. 미군기지 마을의 실례를 통해 그

방식과 구체적 실례다. 불과 몇 달전 심각한 피해를 입었던 수해마을을 찾아가 그 원인을 파헤치면서 자연스럽게 미군 문제를 돌출시킨 것은 매우 설득력 있었다. 이후 계속된 실례들 역시 매우 구체적이어서 이 프로그램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문제가 '생존권' 차원의 문제임을 알림으로써 그 심각성을 고발했다. 더 나아가 한미행정협정의 불평등 조항을 지적하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단순히 고발과 문제제기에만 그치지 않고 대안모색을 위한 노력도 엿볼 수 있었다. 민연련 방송모니터분과는 이 프로그램을 이달의 좋은 방송으로 선정하였다.

이 프로그램에서 돋보인 것은 무엇보다도 접근

첫 번째 사례인 파주 문산읍.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7월에 있었던 파주시 문산읍 수해의 원인을 파헤치면서 미군 쪽의 '협조'가 없어서 피해를 입은 파주시 문산읍 수해와 동두천시 3번 국도 확장공사, 신천제방공사가 지연됐던 이유와 문제점을 밝혀냈다. 매년 반복되는 수해가 더 이상 자연재해로만 보기 어려운 인재이자, 관제라는 일각의 지적이 있었지만 미군과 관련이 있다는 내용은 다소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 따르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땅의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과거 정부가 미군에게 빌려준 땅으로 현재 소유권이 미군에게 있는 '공여지'이기 때문에 미군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여지' 문제는 단순히 '공사지연'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재산권까지도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그것이 알고 싶다>는 말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동두천 '최목마을'의 김병규씨와 군산 '하계'의 최양녀 할머니가 자신의 땅에서 쫓겨나야 했던 경험을 생생한 증언을 통해 보여주었다. 이러한 내용은 우선 일반 시청자들에게 접하기 어려웠던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의의가 있다. 동시에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하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는 평가다. 사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공여지'문제를 통해 '한미행정협정'의 불합리성을 지적, 미군의 공여지 사용이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 여러 면에서 불평등하다는 점을 밝혀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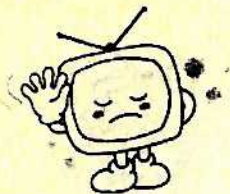
"국내 어느 곳이나 미군이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언제든 '훈련장'이 될 수 있다"는 조항에 의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충북 진천 돌실마을과 경기도 화성군 매항리 상황을 '고발'했는데 그 피해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내용을 잠깐 보자.

돌실마을의 경우 지난 5월 11일 사전예고 없이 미군의 헬기훈련으로 온 마을이 공포에 떨었고, 그 충격으로 가축들이 유산하는 등 재산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또 화성군 매항리의 경우 미군 전투기 훈련장으로 50년 가까이 피해를 입었다. 이 마을은 하루 50여대의 전투기가 비행훈련을 하며, 400-500회 폭격훈련도 이뤄진다. 소음 수치만도 무려 100데시벨 이상이다. 그로 인해 이 마을은 가축 사육이 거의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청음 이상과

자살충동 등의 정신적 피해와 유탄과 폭탄 사고 등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런 훈련에 대한 미군 측의 피해보상도 거의 힘들다.

이처럼 구체적이고 생생한 실례들은 이 프로그램이 의도한 미군기지와 한미행정협정의 불평등 문제의 근거를 충분히 제시했고 단순히 고발에 그치지 않고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프로그램의 완결성을 높였다.

이미 평택과 군산 등 일부 도시에서 미군기지 이용료 받거나 미군 범죄문제 등 '한미행정협정'의 불평등 요소를 개정 운동으로 서서히 일반인들에게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행정부 차원의 협상이나 토론은 이뤄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시기에 <그것이 알고 싶다>는 구체적 사례를 통해 우리 주변에서 흔히 '구호'에 그쳤던 '한미행정협정'의 불합리성을 강조한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계기로 행정당국은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의 '생존권'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비판에 귀기울여야 할 것이다.



오락프로그램의 문제점 총집결판, <일요일 일요일 밤에>

<일요일 일요일 밤에> 여름특집 제7탄
(MBC 8월 29일 일요일 오후 6:50~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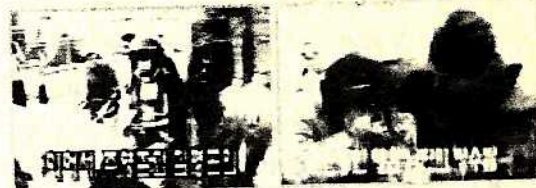
비판에도 아랑곳없이 반복되는 가학적 접근, 무성의한 연출, 시청자 무시 아닌가

<일요일 일요일 밤에>는 문화방송의 간판 오락 프로그램이다.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참신한 아이디어와 연출로 오락프로그램으로서의 재미를 더해주고 「양심냉장고」와 같은 훈훈한 코너 등을 통해 유익한 오락프로그램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이 프로그램은 '몰래카메라'와 같이 이전에 비판받고 폐지되었던 코너가 부활하는 등 최소한의 아이디어 고민의 흔적이나 연출조차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지난 6월 28일 타 방송사에서 사고까지 야기하고 시청자 단체와 신문을 통해 비판받으면서 타사 오락프로그램에서는 결국 폐지한 가학적 코너들이 이 프로그램에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29일 방송된 <여름특집 제7탄 일요일 일요일 밤에>편은 이러한 일련의 문제점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공포조장을 통한 연예인 눈물짜기, 담력 실험을 위장한 가학증 조장',

'무분별한 해외촬영', '몰래카메라', '성차별 이데올로기', '출연시청자 비하·대상화', '간접광고' 등 최근 오락프로그램에서 비판받고 있는 모든 문제점들을 모두 보여준 것이다. 본회 방송모니터분과는 이 프로그램을 이 달의 나쁜 방송으로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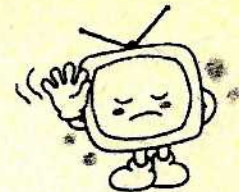
코너명만 바꿀 뿐 계속되는 가학적 코너, 시청자 기만하는 처사

「2002 일본특집-일본 테마파크편」

이 코너의 제작취지는 관광한국을 만들기 위해 2002 일본 최고의 관광상품을 찾아가 보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의도는 허울좋은 치장에 불과하다는 것이 프로그램 내용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이 코너에서 소개된 것은 세가지. 요미우리랜드의 놀이기구 붐(BYUUN)타기를 통해 연예인(가수 S.E.S)의 겁먹은 모습 보여주기, 일본 음식문화 탐방을 빙자한 차태현의 몰래카메라, 소방훈련 119보다 능가하는 공포의 놀이기구라고 소개하는 고리쿠엔 공원의 리니어게일 타기를 통해서 연예인(지누션, 차태현, 차태현 매니저, 김진수, 양진석)이 무서워하고 비명을 지르며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전에 「번지점프」와 「소방훈련 119」, 「왕초 미국에 가다」 등을 통해 연예인의 담력을 실험하며 가학증을 조장해오던 <일요일 일요일 밤에>가 이제는 아예 「관광한국」이라는 허울을 내걸고 일본까지 가서 연예인들을 무서운 놀이기구에 태우기 바꿨다.



이미 KBS와 SBS 등 타방송사에서는 이러한 코너가 막을 내렸지만 <일요일 일요일 밤에>는 8월 29일 방영분에서 이러한 내용을 다시 방영, 여자 연예인들이 공포에 떠는 모습과 동반한 남자 연예인의 반응을 우스꽝스럽게 보여주었다.

지난 8월 22일의 최진실 편에 이어서 29일 김희선 편에서도 여느 공포체험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남성인 주영훈씨가 시종일관 공포탐험 '가이드'로서의 역할을 맡아서 하고 김희선씨는 보호받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설정과 상황묘사는 '강한 남성과 보호받는 여성'이라는 일종의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를 토대로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8월9일 본회 발표, [가학적 오락 프로그램 모니터보고서]참조). 특히 보호자 역할을 해야 할 주영훈씨가 어느 여성출연자 못지 않게 겁이 많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영훈씨는 남자라는 이유로 시종일관 겁에 질려 있는 김희선을 안고 있었고 이러한 장면은 주말 가족 시간대에 시청자들이 보기에 민망할 정도였다는 지적이다.

성차별적 시각은 자막 사용과 반복적인 편집으로도 강조되었다. 겁먹은 김희선을 보호해주는 주영훈을 보여주며 '무섭지만 희선에게 잘보이기 위해 희선을 보호하는 영훈'이라 자막과 주영훈이 무서워할 때 더욱 크게 들리는 웃음소리와 클로즈업 장면 등은 '남자는 여자보다 무서워해서는 안된다'는 남성 우월적 시각을 전제가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런 코너에서 연예인들이 비명을 지르고 겁먹어 고통스러워 하는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포장하는 연출은 '남의 고통을 즐겁게 바라보는'는 비인간적 가치조장의 모습이기도 하다.

또 어설픈 몰래카메라를 통해서 연예인을 속이는 등성의없는 연출로 재미를 주려는 발상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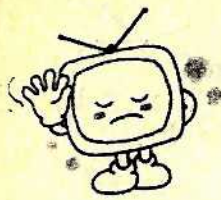
정작 이 코너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연예인이 일본에서 인기있다는 놀이기구를 타면서 우스꽝스러운 장면을 보여준 것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코너가 끝날 무렵 '일본 테마파크 인기비결은 발상의 전환과 독창적인 아이디어'라는 포장된 말로 마무리, 문제점 투성이의 내용을 합리화하기 바꿨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이미 다른 방송사의 오락프로그램에서 비난과 함께 줄어들었음은 물론이고, 자사의 움부즈맨 프로그램인 <TV속의 TV>에서 몇 차례 지적된 바 있다. 더구나 「번지점프」에 이어 「소방훈련 119」, 「왕초 미국에 가다」, 「피즐을 찾아라!」 등 문제시되었던 코너들을 폐지함과 동시에 계속해서 비슷한 류의 가학적 코너들로 대체하고 있음은 제작진측의 양식을 의심케하는 편성이다. 또한 여름특집이라면서 계속되는 지난 방송의 짜깁기적인 코너 구성은 '무성의하고 시청자를 무시한 연출의 극치'라는 결론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성차별 이데올로기 드러낸 공포특집
「여름 특집, 피즐을 찾아라!」

여름철만 되면 빠짐없이 등장하는 공포체험류의 코너. 귀신이나 괴물 등 공포영화의 소재를 이용하는 이 코너는 여자연예인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이들을 보호하는 남성을 동반시킨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신장개입 지원 명분에 감춰진 시청자 도구화
아닌지 점검할 때
「신동엽의 신장개입!」

<일요일 일요일 밤에>에서 고정 코너로 자리 잡은 「신동엽의 신장개입!」의 경우 명분에 있어서는 일단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IMF이후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이 제기하는데 필요한 자본과 비법을 제공하고 자신감 등을 심어준다는 기획의도가 그렇다. 또한 서민들의 현실에서 나오는 진한 감동의 모습도 적잖이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코너에서 보여주는 대부분의 모습은 위와같은 명분을 합리화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이다.

우선 일부 의혹이 제기되었던 부분으로서 공개되지 않은 대상 선정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또 신동엽과 윤은기 박사가 개선되기 전의 상점에 대해 지나치게 부정적 평가로 일관하는 것은 자칫 도움받는 시청자를 비하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할 소지가 충분했다는 지적이다. 도움을 준다는 명목으로 지나치게 비하하는 것은 마치 도움이라는 미끼로 생색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러한 지적이 무리가 아닌 것이 이 코너에 출연하는 시청자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극기훈련이라는 명목으로 '한강에서 수영하기', '영하 25도 냉동고 속에서 버티기' 등 제작자가 요구하는 어떠한 시도도 해야 한다. 강제성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도움을 미끼로 한 주문은 이미 강제성을 띄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이 비판받던 시청자 대상화, 오락 도구화의 문제를 그대로 드러낸 셈이다. 더 나아가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밖에도 조연자로 나오는 유명 음식점들의 간접 광고 문제가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또 최종 평가를 할 때도 개입일 하루 매출액으로 평가하는 모습은 자칫 물질 만능주의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신중한 연출이 필요하다는 당부도 강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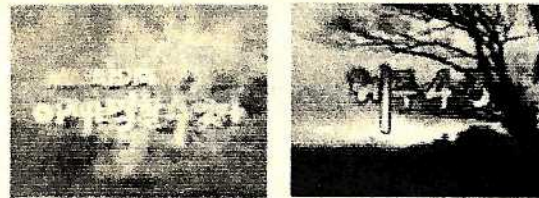


'99 9월의 좋은 방송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객관적 접근, 성역없는 진상규명 자세 돋보여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제주 4·3 항쟁, 동백림 사건
(MBC 9월 12일, 19일 오후 11:00~11:50)



다른 대부분의 다큐멘터리가 피해자 위주로 인터뷰 해왔던 반면 이 기획 프로는 피해자는 물론, 밀고자, 경찰관계자 등 다양한 사람들의 인터뷰 내용을 담았다. 이러한 접근이 자칫 양비론적 시각으로 흐른 다거나 판단을 유보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흐를 수도 있지만 이 기획프로는 오히려 철저한 고증을 보여주었다.

최근 각 방송사는 여러 가지 '밀레니엄 프로그램'을 기획, 방영하고 있다. 매주 일요일 밤 MBC에서 방영하고 있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역시 과거 왜곡·은폐되었던 사건들을 조명하는 밀레니엄 프로그램 중 하나다. 흥미성 내용, 인간극복의 드라마 등 여러 가지 밀레니엄 프로그램이 있지만 이 프로그램의 의미는 더욱 크다. 유난히 질곡이 많았던 한국 현대사의 많은 사건들은 일백년 마감을 앞둔 시점에서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 특별기획은 9월 12일 [제주 4·3항쟁]을 시작으로 19일 [동백림 사건]을 다루었고 앞으로 [조봉암과 진보당], [6·29 선언의 진실]이 더 다루어질 예정이다. 민연련 방송모니터분과는 이 프로그램을 이 달의 좋은 방송으로 선정하였다.

이미 방영된 두 프로를 보면 각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접근과 어떠한 성역도 두지 않고 진상규명하려는 노력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을

이 프로그램

“이제는 역사의 진실을 말하자”

감춰진 정치의혹 규명 특별기획 문화방송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첫회 '제주 4·3' 진상접근 돋보여

“그렇게 공들여 키운 아기를 죽여버리고, 나쁜 놈들... 살아오는 건가, 우리 아기, 내가 그 아기를 때까지 살거야.”

핏기도 없이 앙상하게 마른 103살의 윤희춘 할머니는 주검처럼 누워 있다. 일어나서는 50년 동안 삭여온 한을 더듬더듬, 그러나 정확히 표현했다. 아들 5명을 경찰과 군인의 손에 빼앗긴 할머니. 그리고는 다시 누워 눈만 깜빡인다.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내가 산에 갔다고 아내를 죽였어요.”

억울하게 죽은 아내를 생각하며 50년 동안 홀로 살아온 이형욱(72) 할아버지는 소리내어 제대로 울지도 못하고 얼굴을 일그러뜨린 채 간신히 말했다. 이들은 5공 때까지만 해도 정부기관의 '관리대상'이었다.

반세기 동안 숨죽여 살아온 이들의 기막힌 사연이 12일 밤 온나라에 전해졌다. 문화방송 특별기획 <이제는 말할 수 있다>의 첫회 '제주 4·3' 이 밝힌 진상은 권력의 대량학살, 권력유에 눈먼 이승만 정권과 미국의 협잡이 낳은 결과라는 게 미국 비밀문서와 당시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사태 해결을 위해 민간한 협상을 이끌어낸 제주도 주민들

9월 12일 방영된 '제주 4·3'의 경우 이미 신문이



지난 82년 제주군 다량유골에서 4·3항쟁 당시 학살된 도민들의 유골이 대거 발굴됐다.

책임지는 조봉암 국무부장과 미군에 의해 '불경이'로 지목됐고, 군경은 3만명에 가까운 제주도민을 무참히 학살하는 초토화 작전에 들어갔다.

사실 이런 결론은 새로운 게 아니다. 2년 전, 83분짜리 다큐멘터리 <레드 헌트> (감독 조성봉)는 인권영화제를 통해 이런 이야기를 일반에 알렸고, 검찰은 관련자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제는...)이 방송되기 한 주 전인 지난 7일 법원은 무죄판결을 내렸다.

그렇다고 관계자들의 생생한 증언, 폭넓은 자료 수집 등 집요한 취재로 제주 4·3의 진실을 밝힌 (이제는...)의 빛이 가려지는 건 아니다. 첫회 방송은 동백림 사건 '조봉암과 진보당' 6·29 선언의 진실' 등 앞으로 이어질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를 한껏 높였다.

이성욱 기자



나 방송에서 다뤄진 바 있어 자칫하면 시청자들로부터 '식상하다'는 평가를 받기 쉬운 소재였다. 그러나 소재가 식상하다고 해도 진상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사건이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날 방영분은 항쟁의 주체를 명확히 밝혀내고 미국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등 상당부분 진실을 밝혀내었다.

당시 정부측이 남로당의 계획으로 제주도당이 폭동을 일으켰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 프로는 당시 제주도당의 세력이 미미했고, 제주도민과 친일경찰의 대립이 노골화됐다는 점, 남로당 간부가 제주도당의 결정에 반대해 제주도에 나갔었다는 부분을 밝혀냄으로써 정부의 주장이 맞지 않다는 설명했다.

또한 미국의 책임과 관련, 기존에 4·3항쟁을 다룬 프로그램에서는 주로 한국정부의 조병옥 당시 경찰총장 등의 책임을 밝히고 미국의 책임문제는 간단하게 언급하는 선에서 그쳤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기획에서는 미국의 기밀문서 분석과 당시 상황 분석, 해외의 한국사 연구자들에 대한 인터뷰 등을

'동백림' 그 실체를 말한다

문화방송 오늘 방영...간첩조직 확인·냉전시각 조명

“점심엔 죽어” 분노하는 정의. 지난 67년 7월 국내 신문이 ‘간첩’이란 제목으로 보도한 동백림 사건을 두고 외국 언론은 비어남거리는 재특을 아랑곳없이 썼다. 우리 정부가 독일, 프랑스 등에서 수많은 유학생, 유학생을 불법남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유학생에서 활동하던 현대음악의 거장 윤이상, 최가 이음으로 194명을 체포한 두 간첩단 사건을 발표했고, 검찰은 윤이상 등 6명에게 사형유죄, 이음도 등 4명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건)

그러나 독일 등의 강력한 항의로 관련자들은 결국 관망도 남김 없이 모두 석방되고, 윤이상 등은 뱃살 수 없는 상처를 입고 이국에서 숨졌다. 19일 밤 11시30분 문화방송 <이제는 말할 수 있다>가 시리즈 두번째로 ‘말하지 않은 동백림 사건’을 방송한다. 제작진은 처음 이 사건이 얼마나 조작됐는지 그 실체를 밝히는 데 목적을 뒀다. 그러나 당시 중앙정보부 수사과정, 박정호



대통령에게 직접 ‘자수’했던 핵심 인물, 지금은 독일에서 살고 있지만 정외 언을 선고받았던 독일 피견 활동, 재판장, 변호사 등을 폭넓게 인터뷰한 뒤 고문의 방향이 달라졌다. 정부가 치밀한 계획 아래 남치와 권을 붙이고, 영리한 혐의로 찬상 명 시인 등을 고문해 개인으로 만들고, 서유럽의 합법적인 동아리활동 간첩조직이라고 남조한 것 등을 분명히 확인했지만, 일부가 동백림에서 북한과 접촉한 것 또한 사실

이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남과 북 어느 한쪽 편이 서지 않고 하나의 나라로 여기고 행동한 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였다. 김학영 피대는 ‘일부가 북과 접촉은 했으나 간첩행위는 없었던 간첩단 사건’이라며 ‘분란을 어느 한쪽의 눈에서 보면 영연의 풀리지 않는 사건’이라고 결론지었다. 프로그램은 동백림 사건의 진상과 함께 ‘고립된 섬’에서 살 것을 권유받은 우리의 시작을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까지 가늠해본다. 이성득 기자

통해 미국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냉전상황 속에 처한 한국정부가 미국정부의 지원을 더 받기 위해 노골적으로 ‘빨갱이 사냥’에 나섰다다는 미군 기밀 문서의 분석은 미국의 책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근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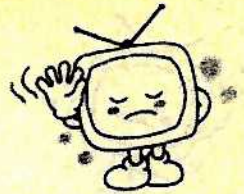
이번 방송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잊혀지고 있었던 ‘제주 4·3’의 의미를 되새기며, 유가족들이 납득할 만한 진상규명 작업이 계속 진척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9월 19일 방영된 [동백림 사건]은 67년 7월 발표된 간첩단 사건으로서 6명이 사형, 4명이 무기징역을 구형, 194명이 체포되는 등 그 규모가 최대였다. 관련자들에 대한 불법납치와 고문, 그리고 관련자들의 망명생활과 이국에서의 죽음 등은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 접근한 방송은 거의 없었다.

이날 방영분은 몇 가지 의외의 사실을 밝혀냈다. 관련자들이 북한과 접촉했으나 간첩행위는 없었다는 점. 사건의 전말이 조작인 것으로 알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일 수 있는 내용이지만 객관적 접근과 끈질긴 취재노력으로 밝혀냈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60년대 당시 남한보다 북한이 더 잘살았다는 내용도 많은 시청자들에게 놀라운 사실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내용은 이 사건에 대해 선불리 해석할 수 없는 복합적 배경이 깔려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앞으로 방영예정인 [조봉암과 진보당], [6·29 선언의 진실] 등의 소재 모두 그나마 몇 안 되는 과거사 조명 프로그램들조차 외면했던 사건들이다. 이번 특별기획을 계기로 과거 아픈 역사가들이 조금이나마 치료되기를 기대해본다.

'99 9월의 나쁜 방송



선정성의 극치를 보여준 저질방송, <슈퍼엘리트모델 갈라쇼>

<슈퍼엘리트모델 갈라쇼>, <99 한국슈퍼엘리트모델 선발대회>
(SBS 9월 12일, 17일)

지난 9월 12일 방영된 <슈퍼엘리트모델 갈라쇼>와 17일 방영된 <99 한국슈퍼엘리트모델 선발대회>는 방송사와 제작진의 윤리의식을 의심케 한 내용으로 강한 비판을 받았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타방송사에서 주관하는 미인대회와 더불어 그 동안 폐지 대상으로 꾸준히 지목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BS는 ‘한국 최고의 미의 제전’이라 자부하며 이 대회를 지속시켜 왔고 올해는 ‘갈라쇼’까지 편성, 방영한 것이다. 특히 12일 방영된 갈라쇼는 어린이와 청소년 등 한 가족이 TV앞에 앉아있을 시간에 속옷차림에 가까운 출연여성의 신체를 연신 아래에서 위로 훑어내는 선정적 화면을 내보내 많은 시청자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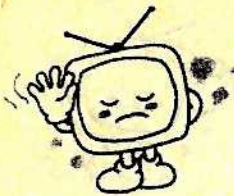
SBS는 또 자사 프로그램인 <한밤의 TV연예>, <임백천의 원더풀 투나잇>에 슈퍼모델을 출연시켜 그들의 선정적 몸짓과 말장난 수준의 내용을 방영하는 등 저질방송의 전형을 보여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한밤의 TV연예>의 경우 6월 3일과 10일, 9월 16일과 23일 총 4차례나 슈퍼모델 관련 내용을 내보내 자사 프로그램에 대한 지나친 홍보도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그 동안 미인대회가 여성을 성 상품화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어왔다. SBS ‘슈퍼모델’의 경우 많은 후보들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선정적인 연출을 보이고 성적으로 상품화시킨 것은 결국 미성년자에 대한 성희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사 시사고발 프로그램을 통해 원조교제의 문제 점을 파헤친 바 있는 SBS가 대부분의 출연자인 어린 여학생들을 이렇게 묘사한 것은 방송사의 상업주의에 의해 빠뜨려진 성인식과 가치관을 전파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 이는 방송사의 공영성에도 스스로 먹칠하는 것이다. 높은 광고수익을 벌어들이기 위해선 어떠한 프로그램도 방영한다는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상업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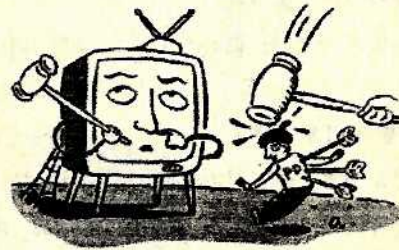
SBS는 한국패션사업의 국제화에 일익을 담당할 전문직업인을 양성한다고 기획의도를 밝혔다. 그러나 방송사가 모델이라는 특정 직업인을 뽑는 대회를 주관하고 이를 공중파를 통해 방영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형 그러한 대회를 너그럽게 본다고 치자. 그래도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 방송

징계 따로 방송 따로... '심의' 안먹힌다

방송사 징계연출자 봐주기... 방송위 '슈퍼엘리트쇼' 징계 미적

새 위원장 제제가 출범한 지 한달도 안된 방송위원회(위원장 김경기)가 프로그램 징계 수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휘말렸다. 방송위 심의소위원회는 가속시청시간대에 선정적 화면을 내보내 팔방을 일으킨(황겨겨 9월 15일 21면 보도) 에스비에스<슈퍼엘리트모델 갈라쇼>

(12일 오후 6시 15분)에 대해 20일 재논의 결정을 내렸다. 예초 연예·오락 심의위원들이 중간단계 징계인 '경고' 조치를 건의했으나 이례적으로 방송위 노조와 바른언론을 위한 시민연합, 여성민우회 등 시민단체의 중징계 요구가 그치지 않아 징계 감도를 경하지 못한 것이다. 문제는 방송위의 오락가락하는 여론 눈치보기식 징계도 그렇거나 약 안하무인의 방송사 태도다. 방송위가 아무리 강한 제재를 해도 이를 별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 '시청자에 대한 사과명령'은 연출자나 방송사로서는



있을 수 없는 중징계로 수직시집 개 여겨야 한다. 그러나 제작의 양식을 의심하는 입들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슈퍼엘리트모델...> 연출자는 97년 <토요미스테리극장>을 연출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명령' 뿐 아니라 연출금지 2개월을 받았다. 또 얼마 전 역시 시청자에 대한 사과명령을 두번이나 내보냈던 에스비에스(임태현의 원더풀 무나잇) 연출자 역시 97년 당시 <토요...>으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명령'과 연출금지 6개월의 제재를 당했다. 방송사상 가장 높은 제재가 지난해 한국방송공사 <일요스포츠>

'수탈'(5월 24일 방송)이 연출제작 혐의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명령, 책임자에 대한 징계, 연출자에 대한 1년 연출금지'인 것을 감안하면, 두 연출자에 대한 징계수위는 결코 간과할 수 없다. 더욱이 이 두사람은 그해 이미 수차례 감도높은 제재를 받은 장면을 따로 모아 추석 특

집을 만들어 비난을 샀다. 방송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방송위 심의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방송사에서도 돌의를 일으킨 연출자를 관리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징계 따로, 연출 따로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독립제작사의 한 관계자는 '의주의 경우 방송위 징계 등을 철저하게 받아들여 불이익을 주는 반면 방송사가 자기 식구들한테는 그렇지 않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문제과다 문제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그 뒤에는 이를 봐주는 방송사가 있다. 권영숙 기자

'99 10월의 좋은 방송



사실적 묘사, 평등 부부의 일면 돋보여

<현장르포 제3지대> '비상대기! 아빠는 출산중'
(KBS 1TV 10월 22일 오후 11:45~12:30)

이 프로그램은 제목에서 말하듯 아빠들이 출산의 고통에 함께하는 모습을 조명한 다큐멘터리다. 다큐멘터리의 경우 사실성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제작자들의 과도한 연출이 가미되고 이로 인해 선정성 시비를 낳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이 프로그램은 과도한 연출도 선정적 요소도 없었다. 민연련 방송모니터분과는 이 프로그램을 이 달의 좋은 방송으로 선정하였다. 사실적 묘사로 완성도 있는 연출은 물론 출산에 함께하는 부부의 평등한 일면을 비추는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한 노산 부부를 포함 세 부부의 사례를 통해 생명 탄생의 진통을 생생하게 보여준 이 프로그램은 6mm 카메라를 통한 밀착 취재, 그리고 그들의 출산 전과 후를 보여주며 프로그램 속에 시간의 흐름을 담은 것이 긴장감과 재미를 더해주었다. 출산 전후와 출산당시 그리고 생(生)과 사(死)를 넘나드는 긴박감을 생생하게 보여준 것은 안방 시청자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다. 이뿐만 아니라 취재대상이 된 병원의 의료진들이 생명을 다루는 만큼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명심보감을 읽고 시험까지 치르는 장면도 매우 인상적이라는 평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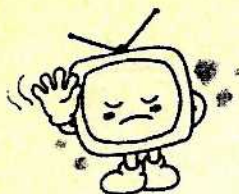
특정 부부를 집중 조명한 이 프로그램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단순 기술했다면 기계적 묘사에 그쳐 재미를 잃었을 것이다. 또 출산문제를 사건 다루듯 조명했다면 인간 생명의 소중함이 자칫 선정적 연출로 왜곡될 가능성도 있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

었다. 바로 부부가 함께하는 출산의 모습을 통해 평등 부부의 일면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특히 라마즈 분만법을 실행하는 신세대 부부들의 모습, 출산준비물을 준비하는 예비아빠의 모습은 출산이 여성의 일로만 여겨졌던 기존의 시각을 뒤집는 것이었다. 특히 한 예비아빠의 "예전처럼 방관자로 지켜보는 게 아니라 같이 낳는 것"이라는 인터뷰 내용은 이 프로그램에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이밖에도 이 프로그램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 남편이 담배를 피는 등 간접흡연을 할 경우 아이가 머리가 나빠질 수 있다는 점. 이는 정보 제공이기도 하지만 출산에 임하는 남편들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 준 것이었다. 그러나 기형아 출산과 관련 60%가 원인불명이라는 내용의 경우 환경문제 등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 접근, 분석하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쉬움으로 남았다.

방송은 그 사회적 영향력과 교육적 효과를 생각할 때 우리 사회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 반대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녀에 대한 선입관의 경우 특히 그러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비상대기! 아빠는 출산중>은 비록 상대적 평가이긴 하지만 보기 드문 성평등 프로그램이자 좋은 방송이라 할 수 있다.



'99 10월의 나쁜 방송

잘못된 기획과 주관적인 시각으로 얼룩진 <PD수첩>

<PD수첩> '박정희를 만난 사람들' (MBC 10월 26일 오후 11:00~11:50)

역사적 평가는 그것이 특정 개인에 대한 것이건 사건에 대한 것이건 발생 당시뿐 아니라 이후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가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또 특정 개인이나 이익집단에 의해서는 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나 최근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보면 경제위기와 더불어 일어난 「박정희 신드롬」으로 그와 그의 집권시기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게다가 김대중 대통령까지 과거와의 화해를 강조하며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과거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던 오류를 반복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회비판기능의 대명사 역할을 해온 MBC <PD수첩>이 인간 박정희에 대한 평가를 다루 관심을 끌었다. 10·26 20주년을 맞아 기획된 것으로 보이는 이 프로그램은 그동안 쌓아온 PD수첩의 명성에 걸맞게 박정희 신드롬의 위험성과 그에 대한 허상들을 깨뜨릴 것으로 기대되었다.

하지만 이날 방영분을 시청한 다수 시청자들은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박정희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일개인에 대한 평가를 정리한 이날 방영분은 너무나 개인에 초점을 맞추어 당시 시대적 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보였다. 더욱이 그에 대해 지극히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인물들, 즉 친분이 있거나 가족들의 일방적인 평가만을 보여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그를 영웅화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는 한편에서 진행되는 박정희에 대한 진

지한 평가작업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었다. 민언련 방송모니터분과가 「PD수첩」-박정희를 만난 사람들 (MBC 10월26일 오후 11:00)편을 이 달의 나쁜 방송으로 선정한 이유다.

잘못된 기획, 주관적인 시각으로 긍정적인 면만 부각시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을 보다 거시적인 틀에서 냉철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로 PD수첩과 같은 시사보도프로그램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날 방영분은 기획부터가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다. 그의 공과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금 박정희이라는 인물의 개인적 삶을 집중 조명한 것은 시의적으로도 적절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논란의 핵심을 비껴간 불필요한 기획이었다는 지적이다.

이날 방영분에서 박정희 전대통령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상실되었음은 프로그램 기획은 물론 인터뷰 대상자들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났다. 인터뷰 대상을 보면 박정희 전대통령을 가까이 지켜봤다고 하는 사람들인 장녀, 학교 동기, 경호과장, 비서관, 고향후배, 동료교사, 군대 상관, 군대 부관, 친구들이다. 일부 시민단체에서 최근 정부가 밝힌 박정희 대통령 기념과 건립 국고 지원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과 민족문제연구소장의 인터뷰는 잠깐 나왔을 뿐이다.

가족이거나 박정희 개인에게 큰 힘이 되었던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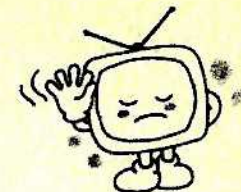
람과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던 이들이 박정희라는 인물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은 새삼 말할 필요도 없다. 실제 인터뷰 내용에서도 그들은 한결같이 박정희를 '대단한 분', '훌륭한 분'이라고 추켜세우며 모든 행동을 정당화시켜주었다.

박정희의 경제적 성과와 반민주성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도 논란이 있다. 그러나 PD수첩은 김일영 교수(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의 인터뷰를 통해 박정희의 독재정치양태를 학문적으로 보아도 필요악적, 불가피한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갔다. 반대 의견의 인터뷰는 커녕 현재 조선일보 지면을 통해 박정희 예찬론을 펼치고 있는 조갑제 월간조선 편집장의 인터뷰까지 온통 박정희 찬양조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러한 인터뷰 내용과 더불어 '가장 좋은 한국인 1위', '가장 정치를 잘한 역대 대통령 1위'라는 일부 매체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최소한의 개관적 관점까지 포기했다.

노골적인 영웅화, 이상화

특히 이 날 방송은 박정희에 대해서 가까운 사람들의 평가를 들여보는 차원을 넘어서서 인간 박정희를 영웅화, 이상화시키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는 비판이다.



“삽교천 행사장에서 몇가지 좋지 않은 그런 게 있었죠. 헬리콥터 바람에 사슴이 넘어져서 숨졌다면 가.”

“그런데 그 날은 유난히 저하고 직접 인턴폰이라도 통화를 하시려고 그렇게 찾으셨대요, 사방으로. 그러다가 안되니까 부속실에 오늘 식사하고 오니까 먼저 먹으라고 그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이 됐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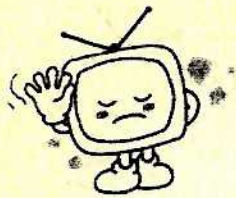
“느닷없이 평 한 마리가 그대로 참가에 부딪쳐서 푸드득하고 피를 흘리면서 숨져가는 거예요. 참가 부딪쳐서 죽는 예가 없었어요, 그런 예가 내가 청와대에 그렇게 오래 있어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위의 내용은 마치 고대 인물의 위인전기어나 나울법한 일화를 보는 듯하다. 논란이 되는 현대사의 인물을 이런 식으로 묘사하는 것은 그의 모든 면을 긍정적으로만 해석할 우려를 낳았다.

“10.26때 돌아가신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가실 때 보십시오. 한 마디 말씀도 없습니다. 총을 맞았을 때 '야 경호원'하고 찾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분은 죽음에 대해서 구차하게 변명을 하거나 비굴하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총 맞으시고 그대로 돌아가신 겁니다.”

위의 내용은 박정희가 총에했다는 부하의 총탄에 숨겨진 사건에 대해서 미화하기 바쁜 당시 경호과장의 말이다. 이에 대해서 PD수첩은 “마지막 운명의 순간에도 깨끗한 군인의 자세를 잃지 않았던 박정희”라며 그의 군인정신을 추켜세우기까지 했다. 이날 방영분에서 박정희 영웅만들기 사례는 너무 많았다.

“그는 아주 매섭고 강인한 군인의 인상을 풍기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 또한 단호하고 강단있는 기



세를 느끼게 합니다.”

“신념에 가득찬 그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강한 카리스마를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남한테 나서는 일을 꺼리고 부끄럼 잘 타는 사람으로 기억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굉장히 자상하고 아주 정스러운 그런 거를 많이 느껴요”

“목숨을 걸고, 언제 죽을 지 모를 정도의 혁명을

하신 분이데 그러면서도 아주 세밀한 청와대 청소부까지 챙기시는 그것도 세밀함이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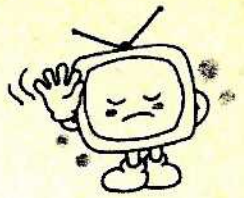
인생의 고비마다 술이 좋은 친구였다던가, 국가원수의 체면도 잊은 채 아내 시신이 있는 방 입구에서 대성통곡을 하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던가, 장모의 생일을 챙기는 장면들은 지극히 일반적인 모습이다. 이러한 점을 마치 박정희의 인간적 면모인양 추켜세우는 모습으로 보여준 것은 설득력이 없었다.

친일행적 분명히 드러나도 비판없이

이날 방영분에서 매우 의아한 것은 박정희의 친일행적과 다른 이들의 항일운동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친일행적을 비판하고 항일운동은 긍정평가해야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거의 상식과도 같은 것임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평가 없이 기술하거나 오히려 박정희의 친일행적을 정당화시키는 듯한 논조를 보이기도 했다. 그 사례를 보자.

“경복대에 남아있는 동기생들의 학적부를 살펴보았습니다. 항일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많은 학생들이 요주의 인물로 낙인찍혀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 박정희는 일본인 선생들로부터 민족감정과 관련된 어떠한 평가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항일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요주의 인물로 낙인찍혀 있었는데 박정희는 그런 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하는 이 내용은 그러나 항일운동한 학생들을 높이 평가하고 박정희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학생 박정희가 민족감정과 관련해 그런 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마치 긍정적이고 다른 항일운동에 참여한 동기생들이 문제가 있는 듯이 느껴지게 할 정도로 애



매한 멘트였다. 이러한 애매한 태도는 박정희의 친일행적에 대해 기술하는 부분에서도 이어졌다.

“일제시대 말기, 대부분의 젊은이들과 마찬가지로 박정희는 일본 군인이 됨으로써 힘과 권력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일본 천황에게 피로서 충성을 맹세함으로써 그는 만주군관학교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사범학교 시절 꼴찌를 맴돌던 그는 만주군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여 금의환향합니다.”

“그러나 해방은 박정희에게 오히려 시련이 됩니다. 고향에서 대대적 환영을 받았던 일본군 장교의 신분이 비난과 조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힘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일본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해방이 오히려 시련이 되는 인물에게 이날 <PD수첩>이 평가를 자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PD수첩은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켰던 박정희 시대에도 부정부패는 없어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박정희가 부하들의 비리사실에는 매우 관대했다는 내용도 전했다. 그러나 이어지는 얘기는 그에 대한 비판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시대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인양 긍정적으로 해석해버렸다. 결국 그것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각종 비리와 경제위기, 문화정체성 상실의 출발점이었는데도 말이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서 박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깨끗함을 가지고 모든 부하들한테 강제시켜 가지고 거기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숙청하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본인은 알았습니다. 거기에 박대통령의 고민이 있었다고 봅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 박정희에 대해 부정적인 면

을 보여준 것으로 민족문제연구소 소장(김봉우 소장)의 인터뷰가 있었다. 이 인터뷰는 박정희 경제개발에 대한 평가가 합리적이지 못하고 외자에 의존하는 재벌을 소수의 경제주체를 만들어내어 오늘의 IMF 위기상황의 원인이 되었다는 내용이다. 또 경제성장을 세계 1위의 뒤안길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인권을 탄압하던 독재의 그늘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대목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구색 맞추기식 이상은 아니었다는 지적이 일만큼 이 내용에 대한 부연설명이 없었다.

이 날 <PD수첩>의 클로징멘트는 시종일관 박정희 영웅 만들기로 홀렸던 방송 내용을 서둘러 수습이라도 하듯 선언적 내용으로 맺었다.

“5.16으로 시작하여 10.26으로 끝나버린 박정희 시대, 박정희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아직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제라도 격동의 한 시대를 이끌었던 정치가로서 치열하게 자신의 삶을 살다간 한 인간으로서 그에 대한 차분한 평가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의 18년 시대를 말하지 않고는 우리 현대사를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날 방송은 박정희에 대해서 지극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친분이 있거나 가족들의 일방적인 평가만을 보여줌으로써 박정희에 대한 차분한 평가에 대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음은 이미 기술한 대로다.

18년동안 대통령의 자리에 있었던 박정희는 우리 현대사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주관적이고 사적인 느낌을 역사적 평가처럼 보여준 PD수첩은 결국 독재자를 미화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되었다. 그동안 쌓아온 PD수첩의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순간이었다.





'99 11월의 좋은 방송

심층·발굴 취재, 성역 없는 보도 보여준, 고엽제 관련 <SBS 8시 뉴스>

고엽제 관련 <SBS 8시 뉴스> 보도 (SBS 11월 15일 8시 뉴스 첫보도)

지난 11월 15일 SBS 8시 뉴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월남전에 사용되어 참전 군인 및 민간인들에게 수많은 후유증을 남긴 고엽제가 한국에서도 뿌려졌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인데 SBS가 “단독 입수한 미 육군성 비밀문서를 통해 최초로 확인”했다는 특종보도였다. 그동안 고엽제 피해 정도와 후유증에 대해서는 여러 언론들이 전한 바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고엽제가 뿌려졌다는 소식은 온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민언련 방송모니터분과는 SBS의 고엽제 관련 보도를 이 달의 좋은 방송으로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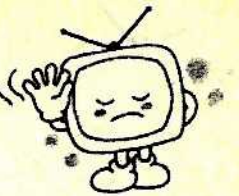
첫 번째, 발굴취재 노력이 돋보인 특종보도였다는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WASHINGTON(AP)'라고 적힌 어느 미국신문의 고엽제 관련 기사를 발견하면서 SBS는 이 사건을 추적 보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현지 취재를 통해 고엽제 피해 관계자들을 취재하고 입수 문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미군주도에 의한 고엽제 살포를 만천하에 알려낸 것이다.

두 번째, 고엽제 살포 및 후유증에 대한 심층적 보도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SBS는 11월 15일 첫 보도 이후 11월 30일까지 고엽제와 관련하여 총 35건이나 보도하였다. 12월에도 후속보도가 이어졌다. 이는 KBS 12건, MBC 9건과 비교하면 대단히 많은 수치다. 내용에 있어서도 KBS, MBC 보도가 SBS에서 이미 보도된 사실, 한·미 국방부의 발표, 피해보상에 대한 한 두건의 보도로 채워진데 반해 SBS는 입수문건 분석, 한 미 양국의 여러 피해자 추적 및 후유증에 대한 자세한 보도 등 다양한 내용과 심층적 보도가 이루어졌다는 평가다.

세 번째, 우리 사회에서 사실상 성역에 속했던 미군이 고엽제 살포를 주도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이다. 11월 17일 <미군이 주도>라는 제목으로 SBS는 “비무장지대에 뿌릴 살초제의 종류도 우리 정부와 협의하지 않고 미국이 주도적으로 결정했습니다. ... 고엽제를 사용하도록 먼저 요청한 쪽도 미국입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같은 날 <책임소재 이견>이라며 한미 양국의 이견을 소개하기도 했지만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주저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같은 날 KBS가 미국방부 발표를 인용, <“한국정부가 고엽제 살포 결정”>라고 제목을 뽑은 것이나 MBC가 <책임 떠넘기기>라는 제목으로 양비론적 시각을 보인 것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결국 다음날인 18일 보도에서 미국이 고엽제 살포를 주도했음이 밝혀졌다.

네 번째, SBS는 <진상조사 착수>(11/16), <진상 규명 보상 촉구><10여명 법적투쟁>(11/17), <일주일째 무대책>(11/21) <민관합동조사 시급>(11/23) 등 피해자 보상 문제와 더불어 진상규명에 목소리를 높였다. 타 방송사가 한미 양국의 공동진상조사를 벌이겠다는 입장을 전달하는데 그친 것과는 비교되는 부분이다.

SBS의 이번 고엽제 관련 보도가 갖는 의미는 크다. SBS의 많은 프로그램들이 시청률과 지나친 상업성에 휘말리는 가운데 방송 뉴스만큼은 상업방송, 공영방송 할 것 없이 우리 사회를 비판 감시하는 감시견 역할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 준 것이다. 진정한 시청률은 바로 이와 같은 좋은 방송에 대한 대가여야 할 것이다.



'99 11월의 나쁜 방송

심각한 사회현상을 웃음의 소재로 전락, 시청자를 '파파라치'로 만드는 <섹션 TV 연예통신>

<섹션 TV 연예통신> (MBC 수요일 오후 10:45~11:40)

'파파라치 프로그램'

MBC의 [섹션TV 연예 통신]을 일컫는 말이다. 연예정보프로그램으로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그러나 연예계 '정보'를 다룬다기 보다는 인기연예인을 밀착 취재함으로써 그들의 사생활을 들춰내기에 여념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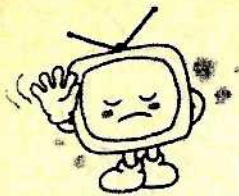
방송 3사 모두 주 60분 가량 편성, 방영하고 있는 연예정보 프로그램이 '파파라치성'을 보인 것은 비단 최근 문제만은 아니다. 본회 방송모니터분과는 이미 지난 해 12월 SBS의 연예정보 프로그램인 <한밤의 TV연예>를 '이 달의 최악방송'으로 선정한 바 있다. 그리고 약 1년만에 MBC의 유사 프로그램인 <섹션 TV 연예통신>을 이 달의 나쁜 방송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연예정보 프로그램의 고질적 병폐가 전혀 개선되지 않아 다시한번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특히 <섹션TV 연예통신>의 경우 11월 방영분에서 연예인 사생활 '감시'가 극심한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대표적 사례는 체시라-김태욱 커플에 대한 내용

지난 11월 10일 이 프로그램은 두 사람의 데이트 현장을 몰래카메라식 촬영으로 훑쳐보고 황급히 피하는 두 사람에게 집요하게 카메라를 들이대었다. 마치 비리 캐는 특종 기자마냥 들이댄 카메라는 그





러나 해당 연예인에게서는 엄연한 사생활 침해가 아닐 수 없다. 무리한 취재과정을 본 시청자들 역시 재미 보다는 불쾌감을 느꼈을 정도다. 세간의 화제를 불러일으킨다는 명분으로도 이러한 방송태도는 합리화하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그러나 두 커플에 대한 방송은 11월 17일에도 이어졌다.

이날 두 번째 꼭지로 내보낸 '결혼식 진상확인'을 보면 두 사람의 부모가 상견례 했다고 알려진 식당 방을 보여주며 '누구누구는 어디 앉았습니까?'라는 시시콜콜한 질문 등 불필요한 내용이 반복되었다.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얼마나 잘 어울릴까?', '열정적인 궁합' 운운하는 등 '정보'로 취급하기에 민망할 정도로 유치한 내용 투성이었다.

같은 날 첫 번째 꼭지로 다룬 [서용빈·유혜정 커플



플의 결혼 소식] 에서도 은밀하게 치러진 결혼식을 공개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인터뷰를 꺼리는 이 두 사람의 본가를 찾아가는 등 그야말로 파파라치 프로그램으로 손색이 없었다. 혹시 '카메라 출동'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정도. 이처럼 당사자들을 괴롭히는 한편 결혼식 공개장면에서 서용빈 선수의 편지낭독 장면이나 진행자의 일부 멘트 등은 자칫 병역비리 선수에 대한 동정심을 조장, 죄

과에 대한 판단력을 흐리게 할 우려도 제기되었다.

자사홍보 지나쳐

이 프로그램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바로 '자사 홍보'다. 이 프로그램은 아예 자사 프로그램 홍보꼭지를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11월 17일 방영분에서는 11월 22일부터 방영된 특집 드라마 <허준>에 대해 무려 7분 29초나 다루었다. 그것도 드라마 내용 소개라기 보다는 NG 장면 등 에피소드 중심의 흥미성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드라마도 홍보하고 시청률도 높이겠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연예인'보다는 '연예계' 조명해야

섹션 TV 연예통신이 진정한 연예정보프로그램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연예인'에 대한 밀착취재보다는 '연예계', 더 나아가 대중문화에 대한 진지한 접근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할 것이다. 연예인을 인간상품으로 대하는 것보다 그들이 속한 각 분야에 대한 정보제공과 분석이 대중문화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스타시스템에 충실한 기존의 방식은 안그래도 부의 부 빈익빈 현상이 심한 연예계의 고질병을 더욱 조장한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99 12월의 좋은 방송



지난 세기의 모순과 편견 극복한 드라마 <슬픈 유혹>

<슬픈 유혹>
(KBS 12월 2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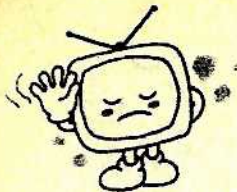
지난 12월 26일 KBS는 소외된 인간들의 드라마 한 편을 선보였다. 세기말 특집 2부작으로 제작된 드라마 <슬픈 유혹>은 회사에서 무능력자로 찍혀 정리해고의 위기를 눈앞에 둔 중년남성과 유능하지만 성적 소외자인 젊은 셀러리맨의 사랑을 소재로 했다. 이들의 사랑이 동성애라는 점에서 세간의 주목을 더 받은 게 사실이지만 동성애는 주제의식을 드러내기에 매우 적합한 소재였을 뿐, 이 드라마가 정작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인간들을 통해 지난 세기의 모순과 편견을 드러내고 새로운 세기를 맞는 시점에서 이러한 모순과 편견들이 치유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치유책이 동성애를 통해 표현되었지만 보다 근원적으로는 인간에 대한 예의와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

민연련 방송분과는 이 드라마를 이 달의 좋은 방송으로 선정하였다. 우선 한 세기를 차분히 정리하는 시점에서 드라마의 주제의식이 시의 적절했다.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소외된 신준영이라는 인물과



회사에서 무능력자로 소외된 정문기라는 인물, 대학의 단절이라는 굴레에 있는 서정해라는 인물을 통해 인간의 원초적인 고통을 묘사하고 동시에 그것을 뚫고 소통, 화해하는 감동의 메시지도 잘 전달되었다. 새천년을 맞으며 인간 대 인간으로 서로를 인정하며 사랑하는 마음가짐부터 새롭게 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많은 감동과 고민을 던져준 것이다.

다소 어렵고, 무거운 주제일 수 있었으나 주제의식을 드러내기 위한 드라마 구성이 완성도면에서 수준급이었다는 평가다. 공영방송으로서 다소 부담스러웠을지 모를 동성애라는 파격적 소재를 선택, 이에 대한 왜곡된 시선없이 담담하게 묘사한 것도 이 드라마의 백미다.



'99. 12월의 나쁜 방송

민중 생존권 외면한 채 폭력사태만 부각한 <제2차 민중대회 관련 뉴스보도>

KBS 뉴스 9, MBC 뉴스데스크, SBS 8시 뉴스
'제2차 민중대회 관련 보도'

지난 12월 10일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51개 노동·농민·빈민·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역 광장에서 2만 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차 민중대회를 열어, 노동시간 단축과 농가부채 해결 등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정면충돌해 학생과 농민, 경찰 등 20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번 2차 민중대회는 노동계가 주도했던 지난 1차 대회와 달리 농민대회 중심이었다. 실업대란이 IMF시대 도시인의 고통을 상징하듯 농가부채는 폐허가 된 농촌의 상징이다. 또 해마다 되풀이되는 자연재해로 생존권 자체가 벼랑으로 내몰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날 민중대회는 바로 이 농민들의 분노가 드러난 시위였다는 게 민중대회 주최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방송뉴스는 사태의 본질, 즉 'IMF사태이후 크게 악화된 노동자·농민의 생존권'에 대한 진지한 성찰없이 폭력사태와 교통대란, 최루탄 사용여부에만 초점을 맞추어, 결과적으로 편파·왜곡보도로 일관했다는 비판이다. 특히 선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며 폭력사태를 중계하듯이 보도한 점은 강하게 비판받았다.

'육박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난투극입니다', '각목과 경찰봉이 난무합니다'
(KBS 12/10)

'각목을 든 학생들이 전경들을 차도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전경이 폭행을 당했고 전경도 시위대를 구타합니다' (MBC 12/10)

'시위대는 죽검과 몽둥이를 휘두르며 경찰과 난투극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SBS 1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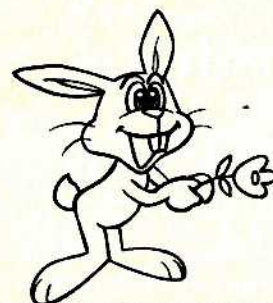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200여명이나 되는 부상자가 난 원인이 시위를 마치고 돌아가는 학생들에 대한 경찰의 토키몰이식 과잉진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폭력적인 시위대'로 돌리기에 급급, 사실을 왜곡했으며 그로인한 교통체증과 시민들의 불편함을 부각시켜 문제의 초점을 흐렸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태도는 뉴스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으로 귀결된다. 민중대회를 통



해 노동자·농민, 서민들이 정작 요구하는 주장들을 외면한 태도로 언론이 여전히 권력지향적임을 반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언론에 조금이라도 보도되어야 할 만큼 절박했던 농민들, 일부 시위대의 지나친 행동, 그리고 경찰의 과잉대응이 맞물리면서 사태가 악화되었던 제 2차 민중대회 관련 보도는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시위장면에 집착하는 방송뉴스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말았다.



III-1

'99 기획모니터 - 보도부문



기획모니터

보도부문

- ▶ 경서공방 '생중계', 진상그림 외면하는 보도
- ▶ KBS대면법조비리 관련 보도, 추스와 본질 모도로 얼룩져
- ▶ 사태 정확히 전달 못한 '질속 보도'
- ▶ 민중생존권, 인권 무시하는 방송뉴스, 추소 보도, 편파시비로 얼룩져
- ▶ 논쟁분쟁, 사회감시 기능에 못미치고 있다
- ▶ '국정감사 보도' 실종, '국정감사장 보도'에 그쳐



정치공방 '생중계', 진상규명 외면하는 보도

1999. 1. 1 ~ 1. 6
KBS 뉴스 9, MBC 뉴스데스크, SBS 8시 뉴스

지난 12월 31일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안기부의 국회사찰 분실'이라고 지목한 국회본관 529호 사무실을 부수고 들어간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우선 과거 정권이 자행했던 정치사찰이 국민의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던져주었다. 동시에 경제청문회 등 궁지에 몰린 한나라당의 '계획된 움직임'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정치공세를 펴고 있는 한나라당 스스로가 과거 여러가지 사찰로 인권침해도 서슴지 않았던 주범임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자신들이 집권할 당시 이루어졌던 사찰의 파오는 반성하지 않은 채 정치공세를 펴고 있는 한나라당의 행태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이에 본 모니터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안기부에 의한 정치사찰 의혹은 물론 지금까지 여러 차례 드러난 바 있지만 진상규명되지 않았던 과거의 사찰 문제까지 총체적으로 진상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궁지를 모면하고 정치공세를 위해 폭력적 수단까지 동원한 한나라당의 태도는 그 위법 여부를 엄격히 따져 단죄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번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면 사실과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내기 보다는 정치권의 공방이 전면에 부각되었다. 즉 밝혀내야 할 진실에 접근하는 보도태도는 찾아볼 수 없고 '사실보도'를 빙자하여 현상 나열에만 충실하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보도의 역효과를 가져올 뿐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방송뉴스



의 경우 고성이가 오가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여과없이 방영함으로써 정치불신만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공방보도는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이루어졌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농성과 몸싸움으로 시작해 하루종일 지루한 말싸움과 줄다리기를 계속했던 국회표정...”(MBC 12/31),

“정치권은 긴장과 대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MBC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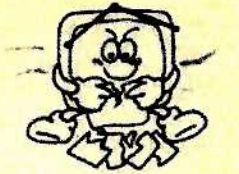
“폭로와 대치, 고발과 수사, 새해 벽두부터 정치권은 이런 일그러진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MBC 1/2)

“여야의 공방전은 고발과 맞고발로 이어지면서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MBC 1/3)

“여야는 오늘도 마치 여기서 끝을 내겠다는 것처럼 격렬하게 맞섰습니다”(MBC 1/4)

“여야의 이런 대립은 오늘 국회의 법안처리 과정에서 몸싸움 일보직전까지 가는 험악한 사태로 이어졌습니다”(MBC 1/5)

“여야간의 대립과 공방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



날짜	앵커의 여는 멘트	기자의 닫는 멘트
12/31	국회는 올해 마지막 날까지도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오늘로 예정되었던 국회 본회의는 결국 열리지 못해 ...
12/31	이렇게 농성과 몸싸움으로 시작해 하루종일 지루한 말싸움과 줄다리기를 계속했던 국회표정 새해 첫날부터 정치권은 긴장과 대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렇게 거친 몸싸움과 거친 말싸움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1/1	여야의 공방전은 고발과 맞고발로 이어지면서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신년 정국에 또 한차례 파란을 예고했습니다.
1/3	여야의 공방전은 고발과 맞고발로 이어지면서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다시 시작되는 임시국회동안 제대로 운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5	오늘 국회의 법안처리 과정에서 몸싸움 일보직전까지 가는 험악한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여야는 이처럼 감정의 골을 더해가면서 대화와 타협의 여지는 더욱 좁아들게 되었습니다.

<표 1>

니다”(MBC 1/6)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KBS 1/1)

“한나라당은 이 문건이 안기부의 국회사찰 증거라면서 대여공세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 이에 국민회의는 총강경 대응을 결의했습니다”(KBS 1/2)

“여야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공방을 거듭하고 있습니다”(KBS 1/3)

“한나라당 측의 공세도 연일 거세지고 있습니다”(KBS 1/4)

“이에 야당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는 입장인 여야간에 격돌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KBS 1/5)

“국회정보위 사무실 난입사건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은 오늘도 계속 됐습니다”(KBS 1/6)

“여야는 하루종일 말싸움만 계속했습니다”(SBS 12/31)

“새해벽두부터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SBS 1/1)

“여야 공방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SBS 1/2)

“국회 529호실 진입 사건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SBS 1/3)

“국회 529호실 사건을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 대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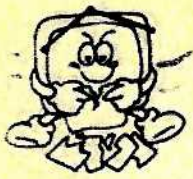
을 치닫고 있습니다”(SBS 1/4)

KBS에서 두드러진 '생중계 보도'

KBS에서는 현장중계식 보도가 두드러졌다. 1월 1일 <한나라당 529호실 불법 강제진입>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는 한나라당의 강제진입 과정을 현재형으로 자세히 묘사하고 있어 마치 그 장면을 즐기는 듯한 인상마저 주고 있다. 같은 날 <한나라당 철저한 보안속에 강제진입>이라는 제목의 보도 역시 현장중계식이었다.

“529호실 앞에 농성중이던 한나라당 당원들이 갑자기 대열을 짜 구호를 외치고 결의를 다집니다. 이어 이회창 총재를 비롯한 한나라당 지도부가 등장하자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합니다. 갑자기 한나라당 의원과 당원들이 당원이 아닌 사람들을 모두 밀어냅니다 ...”(KBS 1/1)

“국회 사무처 직원은 물론 경위들이 한나라당 의원 보좌진과 사무처 직원들에게 떠밀려 쫓겨납니다. ... 기자들의 항의는 구호소리에 파묻히고, 현장은 한나라당 관계자만 남았습니다. 철저한 보안속에 불



과 10분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KBS 1/1)

이러한 상세 묘사에 대해 KBS가 한나라당의 강제진입 행위를 부각시켜 그 부정적 모습을 강조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었다. 또 한편으로는 이번 사건을 ‘정치권의 싸움’으로만 치부, 마치 관찰하듯 묘사한 것이기 때문에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는 의지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부정적 전망 일색, 정치불신 조장하는 MBC 뉴스

한편 각 보도의 여는 멘트와 닫는 멘트가 부정적 전망을 나타내고 있어 정치불신을 조장하는 또 다른 형식으로 비판받았다. 이러한 태도는 MBC에서 두드러졌다.

정치사찰 의혹규명에 소극적인 보도

한편 방송뉴스에서 정치사찰 의혹규명에 나서는 보도는 거의 없었다. 또 각 방송뉴스는 정치권의 공방에 치중한 태도를 드러냄과 동시에 야당의 실정법 위반을 둘러싸고 안기부, 검찰의 입장을 강조했다. 특히 SBS는 야당의 공세에 대한 안기부의 반박을 전(全) 화면 자막과 함께 강조하여 여당과 안기부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게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이 문서는 내각제 논의가 조기에 공론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개헌합의라는 정치적 약속을 무력화할 수 있는 명분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안기부는 이에 대해 ... 문건에는 국회 업무파

악을 위한 방법 등이 적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안기부는 ...” (SBS 1/2)

KBS 역시 앞서 지적한대로 한나라당 진입과정을 부정적으로 상세 묘사한 점, 이번 사건을 “한나라당의 국회 정보위 사무실 난입사건”으로 규정한 것 그리고 “국가안전기획부의 입장도 단호합니다”(1/2)등 안기부의 입장을 강조한 점등이 여당에 우호적 태도를 보였다는 의혹을 샀다.



언론, 자체적으로 진상규명에 나서야

이상 살펴본 대로 방송의 보도태도는 현상나열과 여야의 입장을 받아쓰기에 급급한 공방보도로 진상규명에 소극적이었다. 또 한나라당의 불법 행위 및 정치공세에 대한 비판 부족 등으로 얼룩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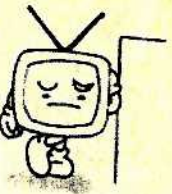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전히 의혹속에 있는 정치사찰을 완전히 파헤치고 더불어 과거 정권하에서 있어왔던 사찰까지도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여권의 ‘뜨거운 감자’에 대해 외면하거나 여야의 공방보도로 본질을 호도하는 방송 뉴스의 보도태도는 시청자의 알권리를 외면



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또한 정치보도는 의례 공방보도로 일관하는 언론의 보도태도는 이제 심층취재, 탐사보도 등 진상규명 노력을 위한 보도양식을 갖추고 시청자의 진정한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KBS 대전법조비리 관련 보도, 축소와 본질 호도로 얼룩져

1999. 1. 7 ~ 1. 13
KBS 뉴스 9, MBC 뉴스데스크

지난 1월 7일 MBC에 의해 대전 법조비리 사건이 특종 보도되었다. MBC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검 부장검사 출신 이종기 변호사는 “최근 5년간 대전지역에서 민·형사 사건을 1년에 400여건 이상 싸셨다”(1/7)였다고 한다. 또 이 변호사의 비밀 장부에 따르면 92년부터 97년까지 사건수임 내역과 사건을 소개한 사람, 소개비, 사건 의뢰인들의 희망사항까지 자세히 적혀있다고 한다(1/10).

이번 사건은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이 발생한 뒤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드러난 법조계 비리로서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매년 그렇듯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성역없는 수사로 법조계의 부패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 따라서 ‘철저한 수사’와 ‘법조계 개혁’을 강조하는 언론보도 태도가 절실하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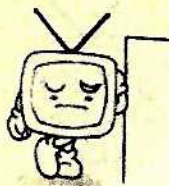
그러나 이를 특종 보도한 MBC 보도가 진실을 파헤치고 법조계 비리를 근절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전한 것과 달리 KBS뉴스는 수사결과에 따라가기 급급한 보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비리 중심에 있는 이종기 변호사의 사무장, 김현씨의 발언을 별다른 검증없이 톱기사로 다룬 것을 비롯, ‘법조계 비리’라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KBS는 보도 첫날인 1월 8일부터 ‘법조계의 당혹한 모습’을 지나치게 부각, 비리척결 대상인 법조계의 시각에서 이번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예를 들면 “변협의 위상을 약화시키는 법률안이 마련되는 시점에 이번 사건이 터져 변협의 입지확보에 어려움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판사 출신 이순호 변호



사 비리 사건으로 판사들의 사기가 떨어진다 이번 사건까지 겹쳐 올 3월 정기 인사때 판사들이 대거 사직하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에서 그렇다. 이러한 보도태도에서 이번 문제가 ‘법조계 부패’의 문제라는 본질을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 변호사 개인의 비리에 대해 관련자들이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을 묘사하여 본질을 흐렸다는 지적이다.

또 “전관예우 등 집단 이기주의와 폐쇄성에 길들여진 법조계로써는 스스로 정화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며 한계를 미리 가정하는 보도(?) 역시 진상조사를 주장하기보다는 소극적인 보도가 아니냐는 비판이다. 이는 같은 날 MBC가 <대법원도 진상조사>, <전관예우 고질병>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한 꼭지씩 다루며 특히 ‘전관예우의 문제점’에 대해 비교적 심층보도를 한 것과 매우 대조적이었다.



KBS가 본질을 호도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은 같은 날(1/8) <관검사도 20여명 연루>라는 제목의 보도에서도 지적되었다. 이 기사에서 KBS는 “김현씨가 폭로한 문제의 비밀장부가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이냐를 밝히는 데 있습니다”며 일단 유보적인 자세를 보였다. 이는 일면 신중한 자세로서 그 자체가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러나 이어 “김씨가 비밀장부를 폭로한 것은 이 변호사와의 불화 때문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김씨는 그동안 이 변호사에게 4천여 만원을 주지 않으면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는 기자의 리포트가 이어져 이종기 변호사의 개인적 인간관계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러나 김씨와 이변호사의 개인적 불화문제와 법조계의 비리 규명은 별개의 문제로 이를 확실히 구분하지 않는다면 자칫 이번 사건이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본질이 희석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법조계의 만연한 비리를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에 보도의 초점이 맞추어졌어야 했다. 그러나 KBS의 보도는 개인적 불화문제를 비중있게 다룸으로써 본질을 혼돈 시킬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보도태도 역시 같은 날(1/8일) MBC의 보도태도와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MBC는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비리의 고리를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강력한 공감대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라는 앵커의 멘트에 이어 “법과 양심에 따라 범집행을 하고 수사를 해야 하는 판검사들이 사건을 소개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도덕적인 비난을 면하기 어렵습니다”라

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한편 KBS와 MBC 모두 시민단체의 진상조사 목소리를 보도했으나 MBC가 3개 시민단체 관계자의 인터뷰하여 진상규명의 목소리를 직접 전한 것과 달리 KBS는 앵커의 멘트만으로 짧게 처리하였다.

비리연루자 발언 검증없이 보도하는 KBS

다음날인 9일 KBS의 보도는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는 정도가 매우 심각했다는 비판이다. 이날 KBS는 비리 핵심인물로 지목받고 있는 김현 사무장의 전화인터뷰를 별다른 검증이나 비판없이 톱기사로 보도하였다. <사례비 아니다>라는 제목의 이 보도는 김씨의 전화인터뷰를 그대로 내보내며 “김현씨는 KBS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비용은 사건 소개비가 아니라 사무장에 대한 성과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혹을 받고 있는 판검사들에게 이

른바 떡값을 준 일도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폭로한 김씨가 사건 수임비리를 이처럼 전면 부인할 경우 이번 사건의 방향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세무조사 노렸다>라는 제목의 보도에서도 “김현씨는 이번 수임장부의 폭로 배경에 대해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서류가 유출돼 언론에 공개됐으며 곤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김현씨는 공개된 자료의 해석이 진실과 다르고 왜곡돼 보도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고 김씨의 입장을 자세하게 보도하였다. 이러한 KBS의 보도태도는 이번 사건을 법조계 비리가 아니라 변호사와 사무장과의 불화로 발생한 것처럼 본질을 완전히 호도하고 있다는 애초의

우려를 결국 확인시켜주었다는 비판이다.

이와 달리 같은 날(1/9) MBC는 입수한 비밀장부를 토대로 전·현직 판검사 30명을 포함 483명이 이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했다는 내용을 자세하게 전했다. 또한 <벌써 축소?>라는 제목으로 검찰이 “현직 판검사는 돈을 받은 액수가 적혀있지 않기 때문에 사법처리가 어렵다”고 한 것에 대해 “이제 수사가 시작인데 벌써부터 판·검사 감싸기를 위한 울타리를 친 것이 아닌가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라고 하여 법조계의 ‘봐주기 수사’에 의혹을 제기하는 등 진상규명에 적극적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KBS는 이에 대해서도 “검찰은 이 가운데 소개비용이 지급된 것으로 장부에 기재된 사람은 58명뿐이라고 밝혔습니다”며 “검찰은 또 이종기 변호사를 조사한 결과 장부에 기록된 금액은 사무장에게 지급된 활동비 내용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며 검찰발표를 비판없이 나열하기에 급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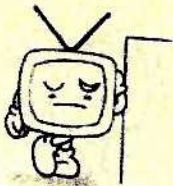
이후 KBS는 적극 수사와 비리척결을 강조하기보다는 ‘사법처리 미지수’라는 분석을 반복했다. 1월 11일 보도에서 KBS는 “검찰 주변에서는 관련 검사들이 대부분 친인척의 부탁을 받고 이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을 뿐이라고 밝혀 현직 검사들이 무더기 사법처리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거명된 판검사 대부분이 자신도 모른 채 제3자로부터 이름이 팔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처벌 징계 대상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라고 전했다. 심지어 “검찰조직 전체의 사기가 떨어지는 등 적지 않은 후유증을 낳을 것으로 예상됩니다”고 하여 비리근절은 간데 없고 ‘후유증’만 염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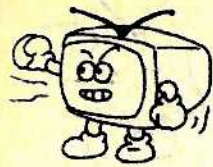
‘법조계 비리척결’ 의제 설정에 적극 나서야

KBS 보도는 수사당국의 발표에만 의존하는 사건 보도의 관행을 되풀이했을 뿐 자체적으로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오히려 비리관련자들의 입장을 검증없이 비중있게 보도하는 등

본질을 호도한 것은 이번 사건이 경쟁사인 MBC의 특종인 점을 의식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했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조계 비리가 뿌리뽑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매우 높은 만큼 언론보도 역시 개인의 비리로 축소할 것이 아니라 ‘법조계 전체의 비리근절’로 적극 의제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특종 보도 이후 ‘법조계 비리척결’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MBC의 보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사태 정확히 전달 못한 '졸속 보도'

1999. 6. 15

KBS 뉴스 9, MBC 뉴스데스크, SBS 8시 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동아일보, 한국일보, 중앙일보

「서해안 사태」에 관한 언론보도에는 우리 언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집약되어 나타나 있다. 남북 간에 중대한 파급을 미칠 수 있는 사태를 보도함에 있어 언론은 '사실보도정신'에 기초하여 있었던 사실을 충실하게 전하려 하기보다는 선정적 확대보도, 추측보도 및 예단보도, 경쟁적 떼거리즘, 냄비저널리즘의 구태를 재연했다는 비판을 받기에 모자람이 없었다. 언론 자신이 먼저 '홍분'해 객관적으로 사실을 보려 하기보다는 각 언론사가 가지고 있던 기존 입장에 '서해안 사태'를 끼워 넣어 정국 전반의 문제와 서해안 사태를 '재각본'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충분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1. 경쟁적 떼거리즘, 냄비 저널리즘 병폐 노출

서해안 북방경계선 상에서 남북 어업선과 경비정 사이에 문제가 생긴 이후 6월 15일 이전까지 '서해안' 사태에 대한 보도는 한, 두 쪽지정도 신문지면 및 각 방송사 메인 뉴스시간에 보도되었다. 6월 15일 '서해안 사태'가 터지고 난 이후 신문과 방송(TV와 라디오)은 온통 서해안 사건에 관한 기사로 채워졌다. 각 신문의 6월 16일자 서해안 사건 보도량은 아래와 같다.

(신문)

- ㄱ. 조선일보 ; 1-2-3-4-5-6-7-29-30-31면에 관련 기사, 8면 전육사교장 칼럼(총 32면, 전면광

고 10면)

- ㄴ. 한겨레 ; 1-2-3-4-5-6-14-15면
- ㄷ. 동아일보 ; 1-2-3-4-5-6-7-22-23-경제면 1면
- ㄹ. 한국일보 ; 1-2-3-4-5-6-7-8-9-11-15-22-23면
- ㅁ. 중앙일보 ; 1-2-3-4-5-9-10-12-26-27-29-32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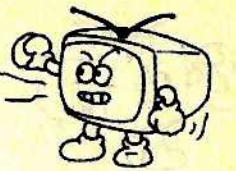
(방송)

- ㄱ. KBS 뉴스 9 ; 6월 15일 5분만에 격퇴, 전군 비상령, 추가도발 대비 등 27쪽지(평균 40여 쪽지 중)
- ㄴ. MBC 뉴스데스크 ; 6월 15일 '북 선제공격 격퇴', '긴박했던 순간들', '지키고 돌아왔다' 등 40여 쪽지(평균 55여 쪽지 중)
- ㄷ. SBS 8시 뉴스 ; 6월 15일 '북 도발 저지', '사전각본 있었나', '전군 전투태세' 등 24쪽지(평균 34,35쪽지 중)

이처럼 각 신문사와 방송은 '서해안 사건' 보도에 대부분의 시간과 지면을 할애했다. 물론 '사안의 중대함에 비추어 당연하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6월 15일 우리 사회에는 '서해안 사건' 이외에도 정국의 향방을 가늠할 여러가지 일들이 벌어졌고, 좀 더 균형있는 양적 배분이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2. 객관성 실종, 불확실한 추측, 예단, 예측 보도

분단극복과 통일국가 건설은 우리 세대 앞에 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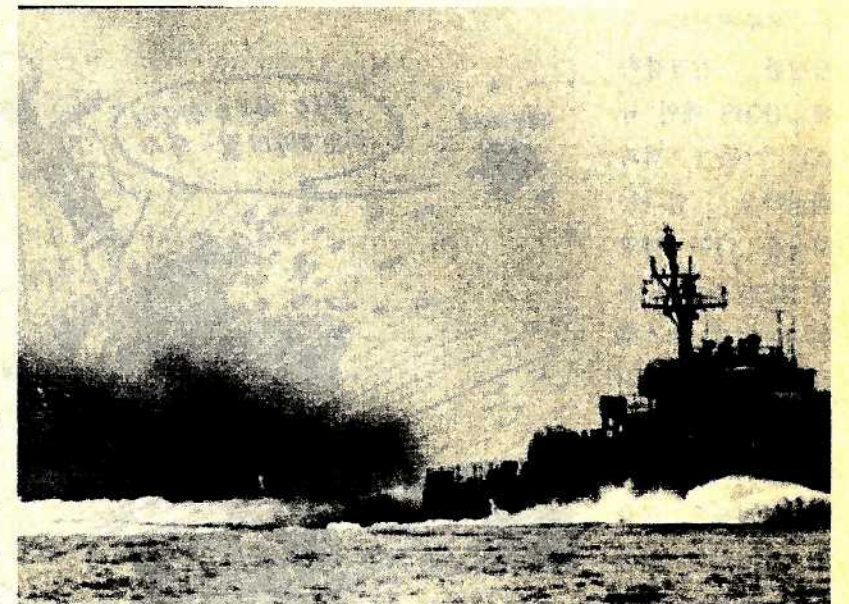
인 현안이다. 그러므로 북한과 관련된 기사를 다룸에 있어 언론사는 더욱 정선된 보도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있었던 사실을 충실히 보도함으로써' 독자로서 하여금 사태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나 서해안 사태를 보도함에 있어 우리 언론은 이같은 언론의 정도를 지키지 않은 채 사건의 배후에 대한 불확실한 추측, 예단, 예측보도에 열을 올렸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는 '의도적 기습이나, 우발적 발포냐'(조선일보), '북한 왜 선제 공격했냐', '북도발 사전에 계획된 듯'(한국일보), '서해교전 이렇게 본다 - 전문가 3인 진단'(중앙일보) 등의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듯 우리 언론은 우선 언론사 자신이 사건을 정확히 보고, 사건을 있는 그대로 전달한 뒤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며 국민들에게 사태를 알리려 하기 보다는 국방부나 합참본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기초로 신문사마다 약간의 보충취재를 통해 글을 만든 뒤 경쟁적으로 사건의 배경이나 추이를 진단하고 예측하려 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또 누가 먼저 공격을 시도했느냐는 중대한 사안을 놓고 6월 15일에는 모든 신문과 방송이 "우리측 해군이 먼저 충돌공격을 하자 북한이 사격했다"고 보도했다가 6월 16일 "북한이 먼저 충돌공격을 감행해 우리는 피하는 상황에서 총격전이 시작됐다"는 식으로 바뀌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도 있었다. 또 교전시간도 6월 15일 당일 5분(교전 중에 누가 시간을 잤는지 모르지만)이라고 모두 확정적으로 보도하던니 다음날 10분, 14분으로 변경 보도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3. 선정적 '전쟁몰이식' 보도

우리 신문과 방송의 서해안 보도를 보면 서해안의 '전운'이 곧 한반도 전체를 휩쓸 것 같은 느낌이 다. 실지로 서해안 사건이 터지고 난 직후 '전쟁 님다며?', '서해에서 전쟁이 터졌데' 하는 식의 이야기를 길거리에서 들을 수 있었다. 이는 대부분의 언론이 서해안 사건을 보도함에 있어 1면 사진부터 시작하여, 제목, 기사 내용에 있어 '마치 전쟁이 터진 듯' 쓴데서 온 부정적 여론 조성현상이다.



'서해교전, 북 어뢰정 격침', '포탄 우박, 5분만에 격퇴 끝', '북, 보복공격 우려, 군 준 전시태세로', '귀짖는 포성, 전쟁터지나'(중앙일보), '북 어뢰정 1척 격침...미군 증강키로', '소나기 함포, 5분만에 상황 끝', '긴박했던 격전의 순간', '긴급, 긴급 준 전시상태 돌입'(동아일보), '북 함정 1척 격침, 5척 대파', '하늘 찢는 팡팡팡 5분, 북 어뢰정 불기둥', '서해교전, 북 어뢰정 침몰', '서해 5도 전투 대비령, 준 전시상황 돌입', '76mm함포, 북 어뢰정 명중...화염 치솟아', '북 어뢰정, 10여분만에 불기둥속 침몰'(조선일